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JUN 1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r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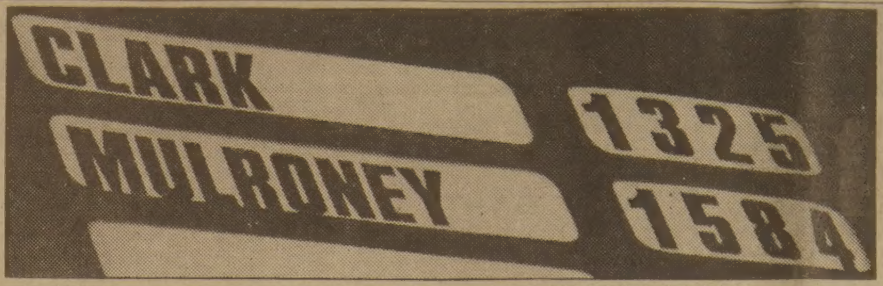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58 1983년 6월 1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June 14,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멀로니씨의 당선을 알리는 제4차 투표 결과가 전당대회장의 전광판에 나타났다.

보수당 당수에 멀로니

4차에 걸친 투표끝에 조·클락 물리쳐

(오타와) 쾌벡주 출신인 브라이언·멀로니(44)씨가 연방보수당의 제16대 당수로 선출되었다.

11일 오타와에서 있은 당수선출 전당대회에서 멀로니는 9시간이나 끌은 4차까지의 투표에서 1,584표를 획득, 1,325표를 얻은 조·클락후보를 눌렀다.

멀로니는 76년 당수선출에서 클락에 패배했었다.

몬트리얼출신 노동운동관계 변호사로서 철광석 생산회사인 아이언·오어·마이닝 컴파니(Iron Ore Mining Company)의 사장으로 경력을 쌓아온 멀로니는 영·불어가 유창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의 인기가 자유당을 앞지르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그가 캐나다의 제17대 수상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투표결과가 발표된 뒤 멀로니는 끝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적수 조·클락을 "지금까지 위엄과 용기로서 영예롭게 보수당을 이끌어온 사람"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4개월간 계속된 당수경합에서 조·클락은 차기총선에서 자유당을 누를 수 있음을 수차 강조해 왔으나 79년도에 9개월만에 정권을 다시 내놓는등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약했던 점이 패배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날 투표결과는 1차에서 클락 37%(1091표), 멀로니 29%(874표), 크로스비 21%(63[illegible]), 크롬비 3.9%(116표), 윌슨 5%(114표), 폭클링턴 3%(102표), 갬블 0.6%(17표), 프레이저 0.2%(5표)였으며, 2차에서는 최대득표 4명만이 경합, 클락 36.7%, 멀로니 34.5%, 크로스비 26.4%, 크롬비 2.3%였다. 3차에서는 클락 35.8%, 멀로니 35.1%, 크로스비 29.1%로 좁혀졌다가 4차 최종집계에서 멀로니가 54.5%로 45.5%인 클락을 누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당선직후 10분간의 연설에서 멀로니는 자신의 가장 급선무는 보수당의 단합및 더 관용성있고 공정한 국가의 건설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연방의석을 갖지 못한채 당내기반 확보에만 주력해온 멀로니는 앞으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미 알버타주 피터·엘진가의 원등이 그를 위해 의석을 포기할 것을 표명하는등 몇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지역에서 그가 의석을 발표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정치 컬럼니스트 리차드·구윈씨는 그의 당선으로 차기 연방선거는 토론토의 변호사 존·터너와 브라이언·멀로니의 대결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2일 센데이·스타지에서 곧 은퇴할 것으로 믿는 트루도수상의 뒤를 이어 자유당 지도자의 위치를 계승할 것이 거의 확실한 존·터너와 멀로니는 여러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많아 캐나다 국민으로서 누구를 차기수상으로 선출할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 신임 보수당 당수 11일 보수당 당수 당선이 확정되자 유고출신인 부인 밀라여사와 함께 당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브라이언·멀로니

새얼굴

—브라이언·멀로니

중재에 뛰어나고 영·불어 유창

1939년 쾌벡주 배·코모(Baie Comeau)에서 태어난 마틴·브라이언·멀로니는 TV화면을 잘 받는 매력있는 얼굴과 자신감에 찬 박력있는 성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면모는 근면한 노력형으로서의 측면. 그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수습받던 시절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졸도한 적도 있을 정도의 하드워커(Hard Worker)이다.

노바스코시아주 앤티고니쉬에 있는 세인트·프랜시스·제이비에(St. Francis Zavier University)대학과 몬트리얼의 라발대학에서 수업한 그는 주로 몬트리얼에서 변호사로서 관록을 쌓으면서 17세 이후 현재까지 계속 보수당원으로서 잔뼈를 굳혀 왔다.

가장 크게 일반에 부각된 때는 76년 당수경합때 1차투표에서 클락을 좇아 2위를 기록한것.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가 어필한 가장 큰 무기중의 하나는 역시 영·불어 두개언어에 유창한 점이었는데 그의 불어는 트루도수상과 비교할때 아카데믹한 세련됨이 약간 결여된 대신 평상어(Street Talk)에는 월등해 불어인구의 중론을 모으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그의 부인 밀라(Mila)는 5세때 이민한 유고슬라비아인.

한번도 연방의석을 가져보지 않은 채 당내기반확보로 당수에 선출될 수 있었음은 뛰어난 조직력, 중재력을 가졌음을 나타내 주기는 하나 과연 그가 지도자적 역량을 가졌는지는 아직 미지수.

개헌풍문 일축

김 국무총리 임시국회에서

(서울 13일=연합) 김상협국무총리는 13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법질서를 망각하고 정치활동을 벌린" 김영삼 전신민당수의 동조자들을 비난했다.

김총리는 이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할 때는 의법조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모든 정치인은 대결자세를 피하고 이성과 대화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전두환대통령의 중임을 위한 개헌풍문을 일축했다.

캐라반행사 17일 개막

한국등 46개국 참가, 9일간 계속

토론토 내의 소수민족제전인 83년도 캐라반(Caravan)행사가 오는 17일 개막된다.

15년째인 금년 캐라반행사에는 46개 소수민족의 전시관이 9일간 개장, 각 민족의 민속과 음식등을 소개한다.

토론토 한인회도 이 행사에 연례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작년도 「서울관」에는 약1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현재 각국관은 고유민족의 특색을 살려 장식과 전시를 하고 있으며 선전주제를 마련, 관람객을 끈다.

관람객들은 각국 민속을 통해 신비와 매력을 맛보고 룸바, 챠챠챠, 폴카, 림보등의 각국춤도 구경할 수 있으며, 중국음식으로 부터 시작해서 세계명물요리를 1,000종류이상 맛볼 수 있다.

또한 각국의 민속공예품이 전시되며 현장에서 판매된다.

한국관에서도 인형, 자개, 목각등의 토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한국관 정문에는 천하대장군 장식과 궁중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분장한 안내자가 지킨다.

또한 금년도 미스코리아 캐나다 진선미로 선발된 3명의 미녀가 안내를 담당한다.

이번에 선보일 서울관의 음식은 불고기, 갈비, 잡채, 만두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각국관에 입장할 수 있는 패스포트(Passport)는 대회기간중 각국전시장 입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예매문의는 전화: 977-0466.

6월17일전에 예매하면 8달러이며 대회당일부터는 10달러. 이 패스포트를 가지면 46개 전시관에 출입할 수 있다. 일일이용 패스포트는 5달러.

금년 서울관의 위치는 830 배서스트(Bathurst at Bloor)의 카톨릭 정보센터(Catholic Information Center)이다.

政治解禁 강력주장

野党側 이번 임시국회 최대 爭點될듯

〈서울본사전화〉 제117회 임시국회가 오는 13일 소집되어 그동안 「정치현안」으로 표현되었던 김영삼 전신민당총재의 단식사건을 둘러싸고 각정당은 새로운 정국의 추이와 아울러 임시국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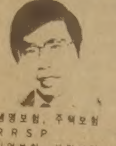
임시국회소집이 결정된 다음날인 9일 김영삼씨가 단식중단을 선언하고 민한당, 국민당등 야당에서는 정치활동피규제자의 전면해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측은 정치활동피규제자전면해금건의안을 여당과 공동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하자는 제의를 하고있어 그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란시 콤세 이도 화장품
은하 보석
로렉스시계
결혼·약혼예물 할인판매
620A BLOOR ST. W.
☎ 534-9977·7791
오메가시계 45%~50%
귀국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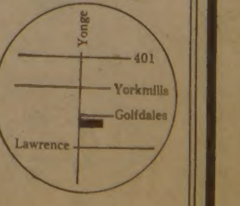
OPEN SPECIAL
컴퓨터

현대 자녀분들의 교육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가장 인기있는 컴퓨터의 하나인 Apple II + Basic System($2,500)과 성능면에서 손색이 없는 Unitron Computer System을 아래와 같이 판매 중이오니 한번 찾아 주십시오.

Package 1 : $1,020
—Unitron Computer(48K)
—Fourth Dimension Disk Drive
—Disk Control Card
—R.F. Modulator
—Power & Monitor Cables

취급품목
ZENITH 12" MONITOR Special $136!!
Diskettes, Diskette Storage Boxes, Printers, Joy Sticks, Peripheral Cards, Components, Books, and magazines, etc.

교육용 SOFTWARES
Algebra(1,2,3,4), Compu-Math Series, Decimal Version, Fraction Version, Compu-Spell, Statistics, Counting Bee, Spelling Bees, and many more.



HIGH—TECH ELECTRONICS
3371 Yonge St. Toronto M4N 2M6
이성형 TEL : 484-9903(B), 226-2618(R)

본국서 합숙훈련

소년 사격선수 손훈군

캐나다에서 각광을 받는 소년 사격선수 손훈(17)군이 태능국제사격장에서 한국 올림픽 파견선수들과 합숙하기 위해 14일 귀국한다.

대한사격연맹(회장 박종규) 초청으로 모든 비용을 제공받는 손군은 오는 1일부터 8월말까지 트랩·슈팅(접시날려 맞추기)을 연습한다.

81년도 캐나다 주니어·챔피언이었던 손군은 작년 7월 해외자녀를 위한 모국여름학교 학생으로 귀국했을때 태능사격장에서 하루동안 사격하면서 한국선수들과 기술을 교환했다.

이때의 손군 성적은 25발 사격중 평균 22개, 한국선수들은 21~22개였다.

손군은 79년말부터 사격을 시작했다. 오는 9월 12학년이 되는 손군의 부친 손일근씨는 10일 "훈이가 84년 올림픽때 한국선수로 나가느냐, 또는 캐나다선수로 출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정이나 한국선수들과 같이 지내면서 기술과 인격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보여준 캐나다 교민2세가 영사관의 주선으로 모국을 방문, 기량을 닦을 기회를 갖기는 이번 손군의 경우가 처음이다.

◆손훈군.

연극 『이발사』가장 인기

씨알학교 예술제

83년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예술제에서는 학생이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연극 「이발사」가 가장 인기를 끌었다.

국민학교 6학년인 한화정군이 직접 각본을 쓰고 정태라양과 함께 연출한 「이발사」는 남에게 친절해야 사람을 받는다는 주제를 이발소를 운영하는 부부 중심으로 엮은 작품으로 영어로 쓴 원본을 씨알학교 4반학생 전원이 한국말로 번역했다.

한해동안 학생들이 배운 것을 학부형들께 선보이는 씨알예술제는 지금까지 2부에서 전체 학생들이 참가하는 연극을 공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각 반별로 발표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예능교실에서 각자 배운 것을 발표했다.

한편 미술작품전시에서는 특상에 오현회, 금상에 이은성, 은상에 한상진, 동상에 유승현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으며 금년에 졸업하는 11명 학생들에 대한 졸업장도 수여했다.

내년으로 개교 10주년을 맞는 씨알학교는 현재 150여명의 학생과 17명의 교직원을 갖고 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의 사나이

<253>

누가 惡魔인가 ⑭

마형사의 엄포에 악사들 펄쩍 뛰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몰라도 그는 트럼펫을 아주 잘 불었읍니다。보통 잘 부는 정도가 아니었읍니다。그 사람의 실력은 프로 이상이었읍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전기불을 끈 사람이 누구지?』

마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 단원들중에는 아무도 그런 짓 한사람이 없읍니다。우리는 모두 무대 위에있었읍니다。그 사람만 빼놓고는…』

『누군가가 그 자를 도와줬어。혼자서 할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저절로 정전이 된줄만 알았어요。나중에 총소리가 나고 해서 사건이 터진줄알았읍니다』

『당신들은 그자가 무슨 짓을하려고하는지 알고있었어!』

마형사가 엄포를 놓자 악사들은 하나같이 펄쩍 뛰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것 같았다。

악사들은 얼마후에 돌아갔다。

센터에는 허탈감만 남아있었다。무능을 탓한들 소용없는 일이었다。소득이 있 아주멋지게 당한것이었다。다면화교범죄조직을분쇄한것이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멍할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있었다。이중삼중으로 포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탈출했으니 수사관들이 망연자실해있는것도 무리는아니었다。

그것도 여자까지 데리고 말이다。놓은 자신이 있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자고 한것이다。두개의조직이 그를 잡기위해 클럽을 포위했고 안에는 수십명의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도 그는 여유있게 도망친 것이다。불을 끄고 불을 지르고, 그런 다음 혼란을 틈타 도주한 것이다。놈이 악사로 변장하고 있을줄이야 누가알았겠는가!

마인은 자신의 몸뚱이를 쥐어뜯고 싶었다。억울해서 견딜 수가없었다。이렇게 당해보기는 처음이었다。

『너희들은 천치바보들이야!』

대머리는 멍거니 앉아있는 부하들을 향해 계속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朴 男 그림

『모두 모가지야! 단 한명도 제구실을 한 놈이 없어! 그래 가지고 센터의 요원이라니 이건너무 한심하지 않느냐 말이야! 모두 사표를 써! 나도 사표를 쓸테니까 모두 사표를 써!』

그는 정말로 사표를 썼다。우두머리가 사표를 쓰니 그 아래에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을 수 없었다。하긴 사표를 쓰는게 문제가아니었다。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이 바보가되었다는사실이더충격적이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놈을 체포해야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105본부는 무용지물이 된다! 모두 옷을 벗고 나가는거야! 그때까지 이 사표는 보류한다!』

거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지 말고 모두 나가봐! 나가서 그놈의 멱살을 끌고와!』

수사원들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그러나 갈곳이 있을리 없었다。

제일 마지막에 마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대머리가 그를 불렀다。마인은 돌아서서 대머리를 바라보았다。

『다 잡은 놈을 놓쳤어。이리와 앉아』

마형사는 대머리의 옆으로 가서 앉았다。

『난 이런 쇼크는 처음이야。자넨 어때?』

『저도 마찬가집니다』

조영증선수 활약 커

소속팀 스팅, 브리져드 격파

북미프로축구리그(NASL) 시카고 스팅팀이 12일 오후 토론토 블리져드팀과의 대전에서 3–1로 승리했다. 스팅은 한국이 나은 명스위퍼 조영증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

익스비션 스태디움에서 14,000여 관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초반부터 맹공을 벌린 스팅이 전반 10분, 후반 37분과 43분에 각각 득점, 동부조에 수위를 달리는 토론토 팀을 당황케 했다.

한편 패배한 블리져드는 이날 주전인 유럽출신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을 유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조선수의 출전을 전해들은 축구협회(회장 : 고광남)는 이날 경기장에 나가 관전하고 조선수를 응원했다..

임원들은 게임이 끝난 후 조선수가 후반 2점득점에 결정적으로 어시스트해 멀러선수와 알론소선수가 득점에 연결시켰다고 그의 기량을 극찬했다.

시카고 스팅팀은 원정경기에 정평 있으며 지난번에도 블리져드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조선수가 소속한 스팅은 현재 4승3패로 동부조에서는 하위를 달리고 있으나 앞으로 게임일정으로 보아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

금년시즌에는 토론토에서의 더이상의 경기일정이 없지만 뱅쿠버와 몬트리얼은 앞으로 각각 2회씩 경기일정을 가지고 있어 조선수는 그곳 교민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경기를 끝낸 조선수와 스팅은 이날밤 8시 시카고로 돌아갔다.

공해실태조사 착수

토론토내 정션·트라이앵글지역

던다스·웨스트와 랜스다운(Lansdowne Ave) 듀폰(Dupont St.)으로 둘러싸인 소위 정션·트라이앵글(Junction Triangle) 지역의 공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다.

정션·트라이앵글 지역은 비교적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공해로 인한 후유증을 불평해 왔다.

공해실태조사는 성인 290명, 어린이 110명 등의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장애여부, 불안증세, 학생들의 학교출석율 등을 조사, 인구수 및 에트닉 분포도는 비슷하나 산업시설은 적은 토론토의 다른 5개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6천여명의 주민과 18개의 산업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몬트리얼 종합병원의 월터·스피처박사가 주도할 이 조사의 결과는 12월에나 보고 될 예정이다.

교 민 동 정

◆장연타(조각가, 삼우스튜디오 경영)=수년만에 격조했던 친지 방문 겸 모국 개인전(조각) 교섭차 서울로 갔다. 약 한달쯤 지내다가 토론토로 돌아올 예정. 부인 조여사는 276 Dundas St. E, Tor. 에서 빵가게 「하니홈·베이크숍」을 경영하고 있다.

결혼축하

신랑 : 최영래씨 4남 인식군.

신부 : 홍성각씨 3녀 윤애양.

때 : 1983년 6월18일(토) 하오 5시

곳 : 한인연합교회(300 Bloor St. W.)

주례 : 이상철 목사

피로연 : Tartu Collece (310 Bloor St. W.)

태양열 프로그램

코트라이트 센터

메트로 자연보호지역인 코트라이트 센타는 오는 6월18일(토)과 19일(일) 양일간 「해(Sun)」라는 주제를 가지고 태양열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 걸쳐 실시될 이 행사는 태양열을 이용한 요리시범과 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손쉬운 태양열 판넬(Panel)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 무료 디자인 제공등이 곁들어 진다.

또한 모든 방문객들은 각자 종이로 해시계를 만들고 시간을 측정하는 실습도 하게되며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측정도 알아본다.

코트라이트는 하이웨이 400 파인밸리드라이브 서쪽과 메이저 매켄지드라이브 남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감사패 전달

승공문화협회, 이웅평 소령에

토론토 승공문화협회(회장 이근우)는 최근 북한에서 미그전투기를 몰고 남하, 귀순한 이웅평 소령의 용단을 환영하는 감사패를 작성, 6월9일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해 서울로 발송, 증정했다.

이 감사패는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수를 남으로 돌려, 자유를 택한 이소령의 영웅적 쾌거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동 협회의 김춘타 총무가 7일 전했다.

광고 정정

13일자 미시사가 한국식품 전면광고에 기재된 품목중 일부가 업무착질로 인해 사실과는 상이함으로 광고전면을 무효화합니다.

추후 정정하여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국)

한국계 『백호』갱단 체포

10대소녀 3명유괴 매음강요

캘리포녀로부터 10대 한인소녀 3명을 유괴, 이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후 맛사지팔러에 취업시켜 돈을 갈취해온 한국계및 중국계 갱단 14명이 9일 새벽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검거된 14명중 6명은 「White Tigers」에 소속된 갱들이며 14명중 다수가 한인10대라고 밝혔다.

검거된 동양인청소년들은 뉴욕 맨하턴 6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납치, 강간, 금품갈취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리니치빌리지에 있는 한인맛사지팔러인 「맨하턴헬스클럽」을 급습한 결과 유괴된 교포소녀 외에 동양인여성 20여명이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뉴욕경찰국의 스태픈·켈리씨가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건개요와 용의자의 체포과정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녀주에 거주하는 17세, 18세, 19세의 한인소녀 3명은 지난 5월2 5일 뉴욕에서 온 동양인남자 5~6명에 유괴되었다.

이들은 밴트럭에 소녀들을 태우고 각지역을 돌아다니다 뉴욕에 도착, 퀸즈의 한 모텔에서 소녀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그후 이들은 소녀들을 앨름허스트 75가에 있는 아파트에 기숙시킨후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맛사지 팔러에 강제로 일을 시켜 이들이 손님으로 부터 받은 돈을 갈취했다.

소녀들은 손님들로부터 매음을 요구당했으며 응할 경우 1백달러의 팁을 받았다.

캘리포녀에서 유괴된 소녀중 경찰에 실종신고된 사람은 없으나 이중 1명은 9일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

용의자 체포경과—유괴당한 소녀들은 8일 하오 그리니치빌리지 근처의 한 패스트후드가게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한 미국인에게 「강제로 맛사지 팔러에서 일하고 있음」을 귀띔, 경찰에 신고해 줄것을 부탁했다.

신고에 접한 경찰은 수사반을 2개조로 편성, 퀸즈아파트와 맨하턴맛사지팔러에 잠복시켜 동정을 살폈다.

앨름허스트에 있는 아파트앞에 잠복한 수사반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동양인남자들이 드나들고 있음을 확인한 후 급습, 6명을 체포하고 소녀 1명을 구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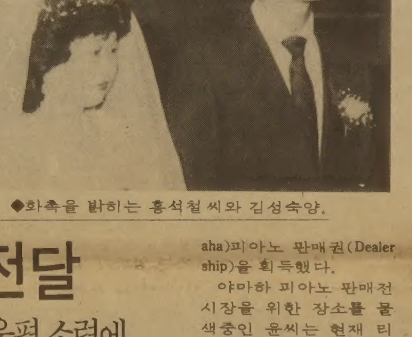
맛사지팔러앞에 잠복한 경찰은 9일 새벽2시께 동양인 1명이 탄 캐딜락이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교포소녀들은 차안에 없었다.

새벽 4시가 돼도 손님들만 드나들뿐 소녀들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맛사지팔러를 급습, 교포소녀 2명을 구출했다.

맛사지팔러 안에는 유괴된 교포소녀 외에도 동양여성 20명이 손님을 받고 있었다.

맨하턴 6경찰서는 현재 검거된 동양인을 개별심문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개인의 신원과 혐의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뉴욕지사)



◆화촉을 밝히는 홍석철씨와 김성숙양.

§ 본 사 동 정 §

▲김운영 편집국장은 소수민족 언론인을 위한 서북부 온타리오주 관광시찰 여행을 마치고 13일 귀임했다. 이 여행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선했다.

▲공무국 홍석철씨와 식자부 김성숙양이 11일 화촉을 밝혔다. 본사 사상 3번째의 직원간 결혼식을 가진 이들은 신문제작에 지장이 올 것을 염려, 신혼여행을 뒤로 미루고 13일 출근해서 사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비지니스 소식란

윤호섭씨

야마하 판매권 획득

지난 6년간 카와이(Kawai) 피아노 판매대리점을 경영해온 모짜르트 음악학원 원장 윤호섭씨가 최근 한국인으로서는 북미 최초로 야마하(Yamaha)피아노 판매권(Dealership)을 획득했다.

야마하 피아노 판매전시장을 위한 장소를 물색중인 윤씨는 현재 리치몬드의 힐·크레스트몰과 스틸즈 & 영의 마캄·플레이스 몰등 2개소에 음악학원과 스토어를 갖고 있다. (전화 : 881–8211)

미시건주 헤인·김양

美전국 優秀졸업자로

교육성 1백41명 선정…대통령 표창

미시건주 블룸필드힐즈의 앤도버고교를 졸업하는 교포학생 헤인·김양이 미교육성이 뽑는 전국우수졸업자 1백41명중에 선정되어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대통령표창 메달을 받는다.

매년 미전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백80만명의 학생중 학업성적, 예술적 재능, 리더쉽, 봉사활동등을 종합평가해 1백41명을 선발하는 이 수상식은 올해로 19년째를 맞고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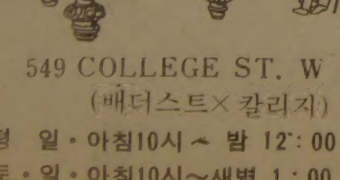
Oriental Recreation Centre

금번 저희는 한국식 당구대(6대 보유), 외국식 당구대및 비데오머신을 보유하고 COLLEGE(조지·브라운 학교옆)에 개업했읍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 용 올림

□한국인의 당구대회예약환영
□특별봉사



549 COLLEGE ST. W
(배더스트× 칼리지)
평 일·아침10시∼ 밤 12:00
토·일·아침10시∼새벽 1:00
924–5597

금주의 김치메뉴

□통김치(큰병) 4L $10 50
□풋배추김치(큰병) 4L $10.50
□섞배기김치(큰병)4L $10.50

큰 병 $1.50
중간병 $1.00
후에 반환받읍니다.

(금주의 별미)

□오이소백이(큰병) 4L $12.00
□물김치(큰병) 4L $7.00
□햇무우깍두기(중간병) (중간병) 2L $7.00
□무우말랭이장아찌 작은 통 $3 00

*배달시간 월요일~금요일 오후1시에서 밤8시
*주문전화 ☎833–6913(공장직통) ☎248–6389(저녁) ☎636–3071(저녁)

김치카나다주식회사

감 사 말 씀

이번 저의 아들 폴·박의 병상을 찾아주시고 장례식에도 공·사간 바쁘신 중에 참례하여 명복을 빌어주신 여러분의 온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하느님 은총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983. 6.

아버지 박명달 합장

나이아가라폭포에 새 관광선

미스트 V호 취항………미스트 II호는 23년만에 퇴역

나이아가라폭포 아래 근접지역까지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메이드오브더 미스트 II(Maid of the Mist II)가 퇴역하고 새로 건조된 V선이 취항했다.

60년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오던 전장 19.8미터의 미스트 II호는 그간 1회 100명 승객을 태워 매년 5만명이상의 관광객을 운송해 왔다.

최근 너무 낡고 동력이 약해 대체하기로 결정, 이에따라 온타리오 리밍턴에서 60만달러를 들여 신형V호를 건립, 취항하게 된것.

지난 8일 나이아가라 선착장에서는 새로이 취항하는 미스트 V호의 진수가 있었다.

대형 트럭에 실려 육로로 이송된 이 배는 대형 크레인에 달려 선창가 낮은 지점에 임시로 가설된 스틸프레임을 타고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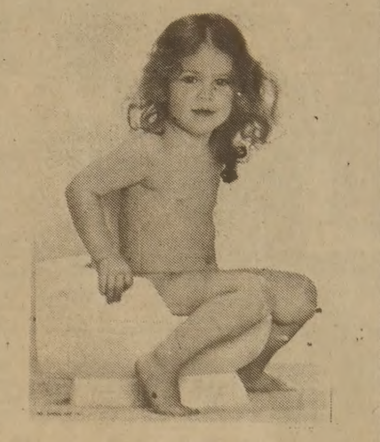
30분이상 소요된 진수작업에 의해 배가 물에 닿자 주변의 관광객 중에서는 합창과 박수등 환호가 터졌다.

약 37년간 메이드오브더 미스트회사에서 일한 67세의 멕긴선장은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훌륭한 배였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 배를 타고 관광에 나섰던 유명인 중에 소련의 코시긴수상, 배우 로이 로저스, 영국 축구선수 핫스퍼스등이 인상에 남는다고 회고했다.

◆8일 새로 취항한 미스트 V호.

어린이들의 대·소변 가리기



언제 어떻게 훈련시켜야 좋은가….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누구나 한번씩 토일레팅(대소변 가리기훈련)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토일레팅은 언제부터 시작하며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이 좋을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토일레팅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은 28개월.

따라서 2살부터 3살사이세 메이타입·토일레팅을, 3살부터 4살반사이에는 나때는 칭찬을 해준다.

아이의 대소변 시간간격을 알아놓아 그 시간이 되면 포티·체어에 앉히는데, 한번에 10분이상은 강요하지 말것. 그리고 이때에는 엄마가 함께 곁에 앉도록 하며 장난감이나 책등을 손에 쥐어준다.

아이가 대소변후 자신의 생산물을 보고 싶어하면 보도록 허락할것.

2,3세때 시작해 3,4세때 끝내 성공적으로 마쳤을땐 칭찬해주고

엄마가 곁에있고 장난감등 손에쥐어주도록

이토타입·토일레팅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아이가 다는 아이들보다 뭐든지 월등하기를 바라는 엄마라면 토일레팅도 미리 시작하려 하겠지만, 쓸데없이 일찍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어도 18개월이 되어야 대변을 조절할수 있고 소변은 그보다 훨씬 뒤에야 조절가능하기때문에, 쓸데없는 프레셔는 아이에게 절망만 안겨준다.

토일레팅을 시작할때에는 아이에게 토일레팅에 관한 어린이책을 읽어주고, 아래가 척척하지 않은 것은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포티·체어(potty chair)를 사주고 성공적으로 대소변을 보았을 때는 칭찬을 해준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대소변을 보고 경이감과 프라이드를 느낀다.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 원인은 대부분이 스트레스인데 부모로부터 떨어졌다든가, 새로 동생이 생겼다든가, 너서리스쿨을 들어갔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하는 등등이 스트레스를 불러올수 있다.

대체적으로 밤의 대소변 가리기는, 낮의 대소변 가리기가 완전히 끝난 몇달뒤에야 가능하다.

토일레팅에 관해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 볼수있는 책중 하나는 「No More Dipers!」(조·그라함·브룩스 저, 5달러95센트)가 있다.

▲간편한 평상복—7일 뉴욕에서 열린 J.C. 페니백화점 의상쇼에서 선보인 평상복들. 타이칼라와 가죽벨트를 걸들인 무늬있는 폴리에스터 드레스(왼쪽)와 검은 데님진에 버팔로 체크 무늬 플란넬 셔츠의 스포티한 차림들이다. 〈뉴욕—AP〉

화재로 대피소동

뉴욕 카네기홀서

〈뉴욕—AP〉 9일 상오 졸업식이 열리고 있던 카네기홀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 뉴욕시장 에드워드·카치를 비롯 졸업식에 참석했던 3천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빌딩대변인은 부상자는 없었으며 불은 바로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카치시장은 이날 카네기홀에서 열린 뉴욕폴리테크닉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기로 돼있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GRAND OPENING
세레나 미용실
오랜 경험과 기술로서 자신을 갖고 봉사해 드립니다.
개성에 맞는 패션헤어스타일 · 최신 헤어스타일 · 컷
개업일자 : 6월 15일(수)
세레나 · 김 635 BLOOR ST. W
(한국관 건너편)
532—3206

"LA한인사회 惡評記事는 「타임誌」造作이 틀림없다"

惡評문구引用 당사자 기따노敎授,記者회견 음식서 냄새난다등 결코 나는 그런말한적없다"

LA지역 이민사회를 특집으로 보도한 시사주간지 「타임」지(6월13일자판)는 고의적으로 한인사회를 모독한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이잡지가 지니는 언론매체의 존엄성이 크게 흔들리고있다.

인터뷰 申請은「LA한인사회 発展相」 "한인들에 상처뿐 아니라 나도피해자" "아시아 人種 분열조장 위험성을 내포"

이번 특집기사에서 한인들을 모독하는 언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UCLA의 사회학교수 해리·기따노박사(Dr. Harry Kitano)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인용문으로 되어 있는 문제기사는 전혀 내가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타임지가 조작한 것이 틀림없으며 우리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한인사회를 포함한 LA이민사회취재를 통해 기따노박사에게 인터뷰를 신청했을때는 동양계이민사회의 발전상과 LA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조사하는 긍정적인 타이틀이었었다고 기따노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이날 한인컴뮤니티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번 기사가 한인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자신도 한인사회와 같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날 기따노박사는 UCLA한인학생회로 부터 한인사회의 충격을 전해듣고 자신이 해명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UCLA교수 해리·기따노박사가 주간지 「타임」에 실린 기사에대해 경위를 설명하고있다.

유태인 연맹서도 공동캠페인 다짐

「타임」지의 한인모독기사에 대하여 유태인연맹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한인컴뮤니티가 펴고있는 항의캠페인을 적극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태인연맹의 제리·하부쉬 컴뮤니티국장은 9일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한인·유태인합동대화모임에서 『이번 타임지기사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며 한인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갖겠다』고 밝혔다.

기따노 教授에 공개書翰 결정 LA시 인권관계위

LA시 인간관계위원회(위원장·워렌·스타인버그)는 9일 상오11시30분 시청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타임지의 코리언컴뮤니티의 왜곡보도에 관해 대책을 논의했다.

소니아석씨등 8명의 위원들은 이날 타임지의 20~21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잘못됐으니 정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집약하고 한국인의 식생활과 정신상태에 관해 악랄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UCLA기따노교수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ETHNIC EXPLOSION	1983	1970
Mexicans	2,100,000	822,300
Iranians	200,000	20,000
Salvadorans	200,000	*
Japanese	175,000	104,000
Armenians	175,000	75,000
Chinese	153,000	41,000
Koreans	150,000	8,900
Filipinos	150,000	33,500
Arab Americans	130,000	45,000
Israelis	90,000	10,000
Samoans	60,000	22,000
Guatemalans	50,000	*
Vietnamese	40,000	*

TIME Chart *Fewer than 2,000

◆시사주간지 타임이 6월13일자 특집에서 밝힌 LA지역의 소수민족 인구수. 동지는 이날 각 민족의 특성과 이민분포를 밝혔다. 한국은 도표상 7위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타임」지 소수계민족혹평기사에 항의 UCLA한인학생 80여명이 10일하오 「타임」지 LA지국건물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따노 교수의 일문일답 要旨

—문제의 타임지기사를 읽고 느낀점은.

▲무엇보다도 내말이라고 인용보도한 구절에 대경실색했다.

나는 「타임」지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인들은 머리속에 든것이 없으며… 음식은 냄새가 나며… 표현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한적이 맹세코 없다.

—이 기사에 대하여 한국컴뮤니티가 느끼는 분노를 이해할수 있는가.

▲물론이다. 분명히 이번 「타임」지 기사는 한인들에 대한 왜곡된 보도임에 틀림없다.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나도 항의전화를 받고서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잘 알고있다.

—왜 이와같은 편견의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이번기사가 귀하의 인용구를 완전히 조작했다는 뜻인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인용하여 인쇄됐으니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타임」지 내부의 "편집진의 권한"(Power of Editor)에 의해 사실내용이 변질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사는 최근 의회에 계류중인 「심슨·마졸리법안」이라는 이민법개정안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여긴다.

—이번 기사가 우리 아시아이민사회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이번기사는 동양계이민사회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 위험한 기사이다.

특히 기사내용이 아시아인종들간의 분열을 조장시킬 위험성이 내포되어있으며 타민족과도 인종편견을 유발시킬수 있는 내용의 보도로 여긴다.

—귀하는 이번 조작된 기사에 대하여 「타임」지에 항의할 생각인가.

▲그렇다. 우선 나와 인터뷰한 기자에게 경위를 들은 다음 「타임」본사에 엄중하게 항의할 계획이다.

「타임」지는 전세계로 배포되는 권위있는 잡지인데 취재와 보도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본다.

—타임지기자가 처음 인터뷰했을때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1개월전에 「타임」지 기자와 약1시간동안 인터뷰를 했다.

그당시 인터뷰주제는 LA의 이민사회의 발전상과 그들이 어떻게 LA사회에 공헌하고 있는가라는 긍정적 소재였다.

물론 인터뷰하면서 약간의 농담조로 동양계이민사회의 장·단점을 언급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사실에도 없는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배신당한 기분이다.

나는 UCLA에서 지난58년부터 연구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아시아이민사회발전상을 조사해왔다.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한인컴뮤니티를 악평했겠는가.

내강의실에는 한인학생도 수강하고있는데 그들이 나의 인격을 믿고 있다고 본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長點은외면 短點만 꼬집다니…" 모욕「타임誌」대책 세우자 한인 各界人士 모임

한인컴뮤니티 각계인사들은 8일 하오7시 영빈관에서 모임을 갖고 교포사회를 혹평한 타임지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서동성변호사는 『이번 타임지기사는 오류에 가득차 있으며 무책임한 기사의 본보기』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제사정이 악화함에 따라 그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제물을 찾고 있는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남가주한인치과협회회장 마부일씨도 『이번 기사는 한국인의 근면성, 강한 차입력등 장점은 외면하고 단점만을 지적한 왜곡보도』라며 『이럴때 일수록 냉정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타운번영회, 시민권자협회등을 중심으로 백악관이나 LA시장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낼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 기사로 인해 흑인·멕시컨등 이웃컴뮤니티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각컴뮤니티대표자들과의 대화나 공동행사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인·亞洲·南美系학생 80여명 "歪曲타임"항의 데모 LA支局사무실앞서 …지국장만나 해명요구

한국이민사회를 혹평보도한 「타임」지기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10일정오부터 1시간반동안 베버리힐즈 「타임」지 LA지국 사무실건물앞에서 벌어졌다.

UCLA한국학생 50여명을 비롯한 필리핀, 중국, 남미계학생등 총80여명은 윌셔와 산타모니카블러버드에서 「타임」지 사무소까지 행진한후 「인종차별보도를 중지하라」 「타임지는 우리를 와해시킬수 없다」 「타임지 기자들은 백색옷을 입고있다」 「하나로 뭉치자」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데모대가 건물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는 동안 정동수 재미한인연합회 회장, UCLA한국학생회장 앤디·김및 필리핀, 남미계대표학생들은 「타임」지 서부지국장 벤자민·케이트를 사무실에서 만나 왜곡된 기사내용을 항의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케이트지국장은 『특집기사에서 LA소수민족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한적은 없다. 이러한 데모사태가 발생한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타임지 기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있으면 letters」(편집인에게 보내는 독자투고)란을 이용하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시위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을 일축했다.

한편 시위중 LAPD소속동양인수사과 수사관 2명과 폭동진압경찰 10여명, 그리고 경찰사이카 7, 8대가 지국장사무실과 건물주위에서 대기했으나 시위는 아무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시위대에는 LA한인회장후보인 장준철씨와 잔문씨도 이사들과 함께 참가했다.

美人혈액중 납함량 4년새37% 낮아져

평균 미국인의 혈액중 납함량수준이 76년과 80년사이 37% 낮아진것으로 보고되었다.

「전국 건강통계센터」는 64개지역 2만7천8백1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 1데실리터당 납함량이 14.6마이크로그램에서 9.2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다고 8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현상을 납함량수준이 낮은 「언레드」개솔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인 歪曲보도 是正요구 방침

LA총영사관측은 미주교포들을 혹평한「타임」지 기사에 대하여 7일 관계자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황광한총영사는 이날 『한인들에 대한 왜곡된 표현은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타임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측은 관계반증자료를 수집해 타임지에 보도의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칼스테이트LA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유의영박사는 『이번 기사가 한인사회를 깊이 파악치 않고 보도된것 같다』면서 『한인에 대한 평가는 전문인들에게 맡겼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리스팅

◎주택

(1) West
a) Dufferin × Steeles
새동네에 들어선 Public Park 가까운 2층집(4 Bedrooms)
Asking 14만5천불(이헌영)
b) Royal York × Summit Cres.
Side Split(3 Bedrooms)
Asking 15만9천불(유응복)
(2) Central
a) Yonge × Finch
2층 붉은 벽돌집(4 Bedrooms)
이태리인소유. Ceramic Tile로 장식되었음.
Asking 25만9천불(이헌영)
b) Don Mills × Lawrence
Bungalow(3 Bedrooms)
Asking 12만7천불(유응복)
c) Don Mills × Lawrence
Bungalow(4 Bedrooms)
학교 가깝고 수영장 있음(16' × 32')
Asking 14만5천불(임윤식)
d) Lawrence × Underbill
교통편리지역(3 Bedrooms) 넓은 뒷뜰 New Carpet.
Asking 15만9천불(이헌영)
(3) East
a) Scarborough
Bungalow(3 Bedrooms) Asking 9만8천불(유응복)
b) Don Mills × Finch
Executive 2-story(4 Bedrooms), Double Garage, Professionally finished basement, Large-lot, Gameroom, Central Airconditioner.
Asking 23만9천불, D/P 7만불(황용현)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황용현 (R)224-1967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응복 (R)447-9395

◎상업

(1)버라이어티스토아
a)Grocery Store(Lease 4년 + Option 5년)
주매상 $7,500, Asking $125,000 + Stock (유응복)
b)주매상 $6,500, (Rent $400/mo) Asking $95,000 (유응복) (황용현)
c)주매상 $5,500-6,500 (Rent $680/mo) Asking $75,00
d)Grocery Store
주매상 $3,000 (Lease 3년 + Option 5년, Rent $675/mo) Asking $25,000 + Stock (임윤식)
e)주매상 $6,000 (In Pickering, Lease 2년 + Option 5년, Rent $500/mo)
Asking $65,000 (임윤식)
f)주매상 $8,000 (Lease 2년 + Option 5년 Rent $1,100)
Asking $129,000 (임윤식)
g)Gift & Smoke Shop in Mall
주매상 $4,000 (Closed on Sunday) (임윤식)
h)Grocery Store (Lease 5년 + Option 5년 Rent $800/mo)
주매상 $7,000 Asking $120,000 (유응복)
(2) Dry Cleaner
(a)연매상 $110,000 Asking $120,000 (황용현)
(b)연매상 $24,000 Asking $189,000 (유응복)
(3)Video Shop
(a)주매상 $1,000 Asking $30,000 + Stock (황용현)
(b)Video Arcade (Plaza내에 있는) 29개의 Game기계
(4) Donut Shop
(a)Donut와 햄버거 Shop
주매상 $6,000 + Video Income $4,000(월) 보장.
Asking $215,000(D/P $50,000) (황용현)
(b)Coffee & Donut Shop
Long-lease 6days open
연 순이익 $45,000 보장 (황용현)
(c)주매상 $6,500
Asking $270,000 (유응복)
(5) Fish & Ships (Downtown Shoping Center)
주매상 $8,000 Asking $279,000 (황용현)
(6) Fast-Food 겸한 Restaurant
주매상 $5,000 (Richmond Hill에 위치)
Asking $215,000 D/P$100,000

◎투자용건물

(1)코너스토어 + 건물(3Bedrooms)
주매상 $8천, Asking $35만 (임윤식)
(2)큰 길가의 가게 + 건물
Asking 16만5천불 (임윤식)
(3)Dufferin×Eglinton
가게(960 SQ FT)달린 건물(2층에 2Bedrooms)
Asking 14만5천불 (임윤식)
(4)주매상 8천불, 1Bedroom APT 4개 달린 Corner Downtown건물.
Asking 41만불 (황용현)
(5)Eaton Center에서 가까운 Commercial Corner Bldg.
Asking 27만9천불, D/P 7만불 (황용현)
(6)Variety Store와 Grocery가 달린 건물.
주매상 4천5백불, Appraisal 가격으로 D/P 3만5천불 (유응복)
(7)코너스토어 + 건물 (2Bedrooms)
주매상 $4,000, Asking $135,000 (유응복)

주택상담실 설치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한국일보

「解禁案」이 큰 爭點

各黨서 임시國會 대책 강구

與 "모든궁금증 풀겠다"
野 與함께 建議書제출

제1백17회 임시국회가 오는 13일 소집되고 그동안 정치현안으로 표현되던 문제가 金泳三前 新民黨총재의 斷食으로 밝혀짐에따라 각정당은 새로운 政局의 추이와 아울러 임시국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있다.

특히 국회소집이 결정된 다음날인 9일 金泳三씨가 斷食중단을 선언하고 民韓 국민당등 야당에서는 政治활동 被規제자의 전면 解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서 최대의 爭點이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측은 정치활동 被規제자의 전면解禁건의안을 與黨과 공동으로 이번 국회에제출하자는 제의를하고있어 그귀추가 주목되고있다.

民正黨은 이번 국회에서 金씨의 斷食문제등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국민의관심사와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일단락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히 본회의의對政부질문과정에서 답변을 통해 金씨의 斷食문제와관련된 解禁등 여러가지문제에 대해 정부의입장을 밝힐계획이다.

李鍾贊民正총무는 『金씨문제등 모든관심사를 국회에서 수렴, 궁금증을 풀겠다』고 말하고 『정부제출법안도 이번 會期중에모두 처리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활동 被規제자 解禁건의안 문제와 관련, 『그건의안은 이미 야당이 제출해놓고 있기때문에 새로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民正黨은 10일하오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원내대책을마련할예정인데 이에앞서 9일 李총무주재아래 총무단과 對정부질문자인 李漢東(非경제부문) 黃炳晙의원(經濟부문)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질문방향등을 협의했다.

民韓黨은 9일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에서 金泳三씨의 斷食사태등 이른바 정치현안문제를 집중거론키로하는 한편 대정부질문과 常委활동을 통해 민주화추진작업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또 이같은 黨의기본입장을 보다 확연히 하기위해 民韓黨 단독으로 새로운정치활동 被規제자 解禁건의안과 구속학생의 석방, 졸업정원제 폐지등을 내용으로하는 학원사태수습 건의안등 2개의 건의안을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民韓黨은 10일 상하오에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열어 구체적인 원내전략을 마련할방침인데 사실상의 대표질문이될 對정부 질문자는 총재단에서나서고 연설문도 당이 작성함으로써 時局수습에 대처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키로 했다.

한편 林鍾基총무는 해금건의안제출과 관련 『일단 당별로 제출한뒤 與野공동보조를 취할수도 있다』고 밝히고 『65년 정치정화법때에도 여야가 공동으로 對정부건의안을 제출했음을 民正黨측에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금명간 의원총회 열고 국회대책을 세울 계획인데 李東鎭총무는 정치활동 解禁에관한 與野공동건의안의 제출을주장하고있다.

金泳三씨 斷食 23일만에 中斷

지난5월18일부터, 解禁주장

정치적주장을 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斷食을벌여온 前신민당총재 金泳三씨가 9일상오 입원중인 서울대학병원에서 斷食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金씨는 정치 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의해 정치활동을 規制받고 있었는데 정치활동 자유보장등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서울銅雀區 上道洞自宅에서 斷食을시작, 7일만인 지난달25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3일까지 斷食을 계속했다.

金씨는 3일부터 매일10%포도당液 2천cc와 아미노산溶液5백cc의링게르液을 注射맞고 이온수、보리차등 음료수를 섭취하며의사들의 가료를 받아왔다.

병원당국은 金씨가 주사를통해 영양공급을 받아왔으므로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건강에이상이없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金씨는 80년8월13일 신민당총재직을 사퇴하면서 政界은퇴를 선언했었다.

"科學技術진흥 힘써야"

全대통령、한국科技院 순시

全斗煥대통령은 9일 오늘날의 세계는 과학기술의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의 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지적, 우리의 살길은 과학기술진흥에 달려있으므로 과학기술立國을 통해 선진조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한국과학기술원을 순시, 林寬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 강조하고 『賦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고급人力의 양성이며 특히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인만큼 고급인력의 양성에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선진국의 첨단기술에 관한 정보등을 早期에입수, 연구해 독자적인 우리의기술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과학기술원에서 배출한 과학기술자들을 과감하게 해외에 파견하거나 해외의 과학기술자를 초빙해 세계첨단기술에 관한 정보와 흐름, 수준등을 빨리파악, 첨단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어 과학기술분야의 도약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全斗煥대통령내외가 한국일보社초청으로 訪韓공연을 마친 나이지리아의 국립무용단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양국 文化교류에 큰 기여"

全대통령、나이제리아 무용단초치

全斗煥대통령은 9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한국일보社 초청으로 訪韓공연을 갖는 나이지리아 국립무용단의 분지·올루톨라단장등 단원3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치, 다과를 베풀고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사절단으로서 양국의 문화교류와 양국민의 우정을 더욱돈독히 하고 심화시키는데 큰기여를 했다』고 치하하고 『한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격조높은 공연을통해 아프리카문화에대한 흥취를 마음껏 맛보았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지난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때 샤가리 대통령 각하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베풀어준 환대를 지금도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으며 라고스 국립극장에서관람한 나이지리아 민속공연에 심취했던 즐거운추억을 아직도 간직하고있다』고 회상하고 『여러분들의 訪韓을 온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에서의 훌륭한 공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자리에는 李振羲문공장관 張在九한국일보사장 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이 배석했다.

支線철도 民營化 확정

철도청、구체작업 실무반구성

철도청은 9일 京春線등 대도시를낀 지선철도를 민영화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崔璟德철도청장은 『적자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京釜,湖南,中央등 간선철도와 산업선을 제외한 전국의 지선철도를 희망하는 민간인이 있을경우 불하할 용의가 있다』고밝히고 이를위해 기획관리관을 책임자로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崔청장은 『현재 불하대상노선이나 인수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나 희망자와 언제라도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말하고 『대상노선이 전부적자이긴 하나 京春,京元,京義,교외선등 수도권을낀지선은 수도권의 주택단지나 레저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비추어장기투자를바라보는 민간기업의 관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崔청장은 또 『희망 민간기업이 철도주변의 개발등 부대조건을 붙일경우 이문제를 고위당국에 충분히 전달해줄 수있다』고 밝혔다.

京春線의 자산평가는 현재 약1천2백억원으로 추계되고있다.

◇이제 4강으로 뛰자。한국선수2명이 濠洲공격수의 침투를 좌우에서 태클,집게수비로 저지하고 있다。 【멕시코AP電送=聯合】

한국 青少年 축구 첫 세계 8強진출

濠를 2對1격파

【멕시코시티=安泰煥특파원】한국청소년축구가 사상처음 8강에올랐다. 한국청소년대표팀은 9일상오 7시(이하한국시간)토루카에서벌어진 제4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예선A조 최종경기에서 金鍾建(서울시청) 金鍾夫(고려대)의 전반득점으로 장신의 濠州를 2-1로 물리치고 8강전에 진출, 12일상오 몬테레이에서 강호 우루과이와 준준결승전을 벌이게되었다.

한국의8강진출은 세계대회 세번째출전에서 거둔 개가이다.

이날 스코틀랜드는 멕시코를 1-0으로 물리쳐 2승1패로 한국과 승점4로 공동 선두를 마크 했으나 골득실차에서 2점앞서 A조1위가 되었고 한국은 2위가됐다. 스코틀랜드는B조2위인 폴란드와 8강전을 벌인다.

全대통령 격려電文

全斗煥대통령은 9일 멕시코에서 열리고있는 제4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사상처음으로 8強에 진출한 한국 선수단에 電文을 보내 격려했다.

國公債 천3백億발행

정부、6월에 양곡증권 철도채권등

재무부는 6월중 양곡증권 9백억원, 국고채권 3백억원, 그리고 철도채권 1백억원등 모두 1천3백억원의 國公債를 발행할계획이다.

9일 재무부에따르면 양곡증권은 10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국채및 철도채권은 13일부터발행되는데발행금리는 11%, 매각방법은 보험단 투자신탁및 은행 단자회사등 금융기관에 전액인수시키기로했다.

금융긴축을하는 속에서 국공채가 발행되면 시중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워질것 같다.

社会漫評

13日에 풀어본답니다…

醫藥品원료 關稅率 내년부터 20%均一

정부는 현재10%에서30%까지 부과하고있는 항암제원료 항생물질 자극성원료등 각종 의약품원료에대한 관세율을 내년부터 20%로균일화하고 40%인탈지면 붕대등 의약품관세율은 30%로인하할방침이다.

9일 재무부에의하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관세제도 개편원칙에따른한편 이제까지 약사법등 특별법에 묶여사실상 수입이 규제되던 의약품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현행 관세율구조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것이다.

현행 의약품 관세율을보면 붕대·반창고는 40%를 적용하고 구급대등 의료용품은 30%로 유사물품간 세율차를 보이는데다 구충제·항암제는 15%인데 비해 기타 질병치료제는 40%로 질병간에도 세율에 차등을두고있어 관세가 재정수입및 수입약품 시판가격 인상효과이외의 산업정책기능을 거의 수행하지못해왔다.

이에따라 재무부가 마련한 관세율개편안에 따르면 혈청및 국제관례로 현재무세가 적용되는 혈청 백신 피부및 뼈등은 계속 無稅를 적용하되 10%인 항생물질, 15%인 항결핵제 구충제 항암제, 30%인 자극성제약원료는 내년부터 모두 20%로 균일화하고 40%인 비타민 호르몬 탈지면 반창고등 의약품은 30%로낮추기로했다.

社說을 가로쓰는 신문 한국일보

千寬宇씨 칼럼 「담배한대물고」
캠페인 「우리말은 아름답다」

地平線

북한주민들의참상이 예상보다 더 비참하다. 매일먹는 음식이 백미와 옥수수 혼합곡 5백85g에 부식은 된장과 나물이 섞인 된장국、소금에 절인 무우밖에 없다고 한다。남한에와서 실컷 배불리 먹으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북한주민들이 늘상 말하고있다는 얘기다.

▼지난1일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주민 鄭範鎬씨(45)에 의하면 생선이나고기는 명절때나 구경할 정도인데 당간부들만은 매월고기나콩·밀가루를 공급받고있어 일반주민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억눌려서 아무말도 못하고사는 북한주민들은 외출복으로 데토론 옷한벌밖에없고,주민의 50%가 단칸방에 살며,일반주민과는 거리가 먼 자동차도 90%는 휘발유와 목탄연료를교체사용하는 것이란다. 그나마 고장이잦아 20%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니,서울의 자동차물결을 보여주면 너무나 놀랄 것이다.

▼鄭씨 말중에서 더욱 희한한 것은 북한에서 不正과 物物交換이 성하다는 폭로다. 각 기관의 물자를 몰래 빼내서 서로 바꿔 쓴다는 얘기다. 얼마나 물자가 귀하고 경직되었으면 그럴까. 金日成이 이를 막고자 특별 黨간부회의까지 열만큼 사정은 심각하다.

▼이에서 보듯 북괴黨간부들의 부조리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귀한 생필품을 빼돌리고 부녀자를 농간한다. 鄭씨 스스로가 그런 농간의 피해자라지만 鄭씨가 전하는 실상은,絶對獨裁는 絶對腐敗한다는 鐵則을 실증한다. 독재의 부패는 바로,독재체제의 末期症狀이다. 金日成체제의앞날은뻔하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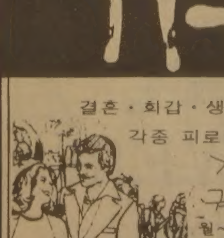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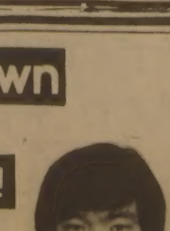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 오전 11시~새벽 1시
금~토 : 오전 11시~새벽 2시
일 : 오후 1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KANATA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QUALITY CRAFT INTERIORS
1999 LESLIE STREET, DON MILLS, ONTARIO
□설계, 시공, 장비가설 전문
□각종 음식점및 호텔
□도넛샵, 커피샵, 쌘드위치 바—아
정기섭
445-6440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희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뎅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게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CHARGEX VISA
ㅁ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ㅁ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뜨거워질 國會 "정치議案 燃燒시키겠다" 3黨의 戰略은…

民正 李鍾贊총무

이번 국회는 각정당이 제5공화국 參與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국회가되도록 운영하겠다. 이는 최근의 문제로 아직도 야당이 깊숙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각정당이 현실을 주도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그래서이번국회의대정부질문은 유권자나 선거구를 의식한 얘기가 아닌 서로의 進路를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국회가 되도록하겠다. 또 모든문제를 국회로 수렴하여 거론하고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관점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2일간모든문제를완전히燃燒시킬수있도록하겠다.

"터놓고 意見을 교환"

또 국무총리의 國政보고에도 지난4월 국회에서 거론됐던것은 제외하고 정부가 지향코자하는 방향을 명확히 밝히도록 정부측에 요청하겠다. 이를통해 정부와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정당과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과 진로를 서로 조정토록하겠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상당한 정치적의미가 있으며 또 성과도있으리라고 본다.

5일간의 常任委 활동기간중에는 계류법안과 정부제출법안을 짜임새있게 처리할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있으면 小委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여는등 모든 절차를 밟아 처리토록하겠으며 반드시 이번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겠다. 현재계류중인 案件이 40여건, 정부移送案件이 40여건으로 모두 8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會期내에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운안건은 이번에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것은 常委별로 계속 심의, 정기 국회전까지만 처리할계획이다.

野黨이 주장하는 政治議案중국회법은 이미 小委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없으리라고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문제는 6월중 중간결산을 해야한다고 野黨이 주장하고 있는만큼 地自制小委로 부터 중간보고를듣고 처리방향정도는 이번에 합의토록 하겠다.

정치被규제자해제건의안은 이미 야당이 제출하여 계류중인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출하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解禁하겠다고 천명한만큼 정부측의 얘기를 먼저듣고 야당과 처리과정을 논의토록 해보겠다.

金泳三씨의 단식사건을 이번 국회의 主메뉴로삼지는 않겠다. 국회는 모든사건이나 사안을 수렴하는것이 그임무이고 따라서 金씨사건도 많은案件들중의 하나이지 전부가 될수는 없는것이다. 특히 特定人의 身上문제를 국회에서 특별히 다룬다는 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며 다만 정부가 취한 그간의 대책을 듣는 선에서 끝내도록하겠다.

民韓 林鍾基총무

우리는 국회기능의 회복없이 국민의 신뢰회복을 기대할수 없다는 自省的 기본자세로 이번국회에 임하고있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문제들을 場內로 흡인시켜야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아래 정당의 존립가치와 국회활동의 의미를되찾는데 黨力을 집결시킬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의 짙은 궁금증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던 金泳三前新民黨총재의 斷食사건을 최우선적 쟁점으로, 학원사태와 언론문제등 이른바 정치현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방침이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의 近因과 遠因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마련한 정치

"궁금증 푸는데 最善"

被규제자 解禁건의안과 학원사태 수습건의안등 두개의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현안에 초점을 맞추는것은 의회가 이를수렴치 못할경우 자칫 이런 활동이 地下로 확산될 우려가있고 그렇게되면 정치는 결국 불행한 사태를 촉발할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被규제자의 解禁이 현안의 불을 끄기위한 先決요건임을 누누히 강조한 이유도 바로 그때문이다.

또한 구속학생 문제와 대학졸업정원제문제등심각한 학원사태로 이번국회에서 수습의 실마리를 풀어야한다.

우리는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民意의 대변기구이므로 정부·여당은 정당한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말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은 형식적으로 그때그때만 모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時局수습과 政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저간의眞相을소상히밝히고향후의해결대책을제시해야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당이 주도적으로 시국을풀어나가는 역할을 국민에게 부끄럼없이 다해야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金泳三씨 斷食사태에 대해 뚜렷한 수습방안이 있는 것은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被규제자를 마저 解禁해 국민和合의 분위기를 높이면서 舊정치인들을 정치권에 복귀시키며 언론과 국회를 활성화하고 학원의 自律性을 보장하고 地自制를 조기실시하는등 國政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時局해결의 첩경이라는 변함없는 생각으로 계속 이의 실현을 촉구하겠다.

우리는 여당이 진작부터 창당이래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제제기에 부응했다면 상황은 달리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때마침 들려온 金泳三씨의 斷食 중단소식이우리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면서도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한다.

모두가 겸허하게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며신뢰의 城土를 쌓는데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국민 李東鎭총무

사실 이번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때 3黨총무간에 9월정기국회가 IPU총회관계로 會期의 상당부분이 빼앗기기 때문에 정기국회전 한차례 소집키로 합의를 보았던것이다.

이번국회는 그간 국민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政治議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국회법개정문제나 地自制실시문제는 여당측안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받고있다고 생각한다. 즉 常任委에 예산심의권을 부활해야하고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지고있는 대도시부터 地自制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더이상 이것이 야당의 주장이라고 외면 당해서는 안된다고본다. 아울러 秋穀수매가등의 책정을 국회동의를 받도록하는것을 골자로 되어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도 1천만 농민들의 영농의식고취는 물론 더 나아가 농민의 死活이걸려있다고보고 정부·여당측을 꾸준히 설득, 관철

"地自制 조기 實施케"

토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회에서 국민당은 가능한한 民韓黨등 다른野圈과 공동으로 정치활동 被규제자에 대한·全面解禁촉구안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지난8일 총무회담때 民韓등 야권에 제의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국민당단독으로라도 전면 解禁촉구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할 생각이다.

국민당은 이번 對정부질문을 통해 소위 최근의 관심사니 현안이니 하고 불렸던 金泳三씨 斷食문제에 대해 정부측에 소상한 답변을 촉구하고 「場外로 번지고있는 정치현상」에 대해 정부측의 대응책을 묻고자 한다. 또 국민당은 이와 곁들여 夏穀價정책 수입자유화, 금융긴축등 당면한 民生, 경제문제도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국민당은 다른정당들이 국회소집에 이러쿵 저러쿵하고 말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을때도 시종일관 소집을 요구해 왔었다.

실제로 소집여부가 流動的인 지난6일에 소집의지를 명백히 하기위해 對정부질문자를 3명을 지명한바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對話정치니 여론정치니 하지말고 진실로 국민의소리를 들을려는 자세를보여야할것이다. 이런노력들이 게을리될때 정치의 場外化는 불가피한 상황이란점을 주지시키게될 것이다.

거듭얘기하지만 국민당은 이번임시국회에서 정치활동被규제자의 전면해금안이 관철되어 전면해금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黨力을 집중할것이며 또이번회기중에 새로 제출하게될 西海岸자원비축기지화를위한 特別措置法案과 농촌근대화촉진법안및 각종공휴일재조정건의안이 함께통과 채택되도록 노력할것이다.

메아리

宿願

恨과 興이 줄다리기를 한다. 우리 민족의 바탕이 한이라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흥이다」라고 되받는 목청도 높다. 한보다야 흥이 좋겠다. 한에 젖어 살아왔다면 이젠 흥으로 일어서야 한다.

멕시코의승전보가 한국축구에 맺힌 恨의 한가닥을 풀어 주었다. 아니 반분이 풀렸다. 6월의 쾌청이 더 눈부시다. 어제 출근길은 마치 개선행진인양 홀가분하고 흥겨웠다. 짜릿한승리의 쾌감을 다시 한번 만끽한다. 이것이 스포츠의 매력이다.

축구열풍이 뜨겁다. 국내외로 몰아치는 흥분에 휩싸인다. 잇달아 터져나오는 환성엔 아무런 티가 없다. 인간의 본연이 이렇게 순수하게 드러나는것은 스포츠 말고도 또 있을까…. 생각이 짧은탓인지 연상이 안된다. 미치지 않는다.

우리 스포츠史엔 자랑거리가 수두룩하다. 반면에 앞에 가로 놓인 宿願도 많다. 한이라면 한이며, 꼭 풀어가야할 숙제들이다. 몇가지 떠오르는대로 훑어본다.

마라톤왕국은 옛이야기, 입에 올리기가 쑥스럽다. 토끼와 거북의 우화처럼 낮잠을 자는지 꾸준히 달리고있는지 궁금하다. 세계와의 거리는 너무 멀다. 난공불락의 한국신기록이라는 장벽을 우선 무너 뜨려야한다. 마라톤의 숙원이다.

농구와 배구는 아시아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공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누른다. 여자배구 올림픽 3위의 기억은 지금도 뻐근하다. 아시아의 울타리를 못벗어, 나는것이 球技의 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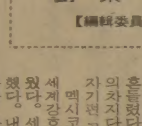
복싱도 비슷하다. 올림픽 은메달을 맴돌면서 한단계 도약이 마냥 힘겹다. 금메달의 숙제가 벅차다.

다시 축구로 눈길을 돌린다.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진출은 해묵은 꿈으로 남았다. 세계의 문전에서 어른거리기만 할뿐, 도무지 결정적 골인이 안터져 안타깝다. 재수, 삼수의 고통이 숙원을 억누른다.

그런데, 어른이 아닌 청소년들이 세계의 문지방을 힘차게 뛰어넘었다. 젊은 투지를 한껏 뽐내고 싶다. 그들손에 한국축구의 숙원이 풀릴 열쇠가 쥐어졌다. 목표는 8强, 의지대로 성취했다. 그래서 승리가 값지다.

스포츠는 기록과의 투쟁이다. 갖가지 축구의 기록을 알아보면 흥분의 땀이 손에 밴다.

기네스 북은 역시 흥미롭다. 사커페이지를 펴드니 먼저 눈에 잡히는것이 국제경기에서의 최대 득점차다.



劉榮鍾
【編輯委員】

우리나라가 스웨덴에 12대0으로 대패한 아픔이 살아난다. 이 스코어差는 약과다.

1951년 잉글랜드와호주가 시드니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17대0!. 잉글랜드의 대승이었다. 그러나 이경기는 국제시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꼬투리가 붙었다.

한팀의 17골도 대단한데, 한 선수가 한 게임중 16골을 따낸 일도있다. 프랑스의 렌스클럽 소속인 스테판 스타니선수가 2차대전중 남긴 기록이다.

축구황제 펠레의 위업은 새삼 혀를 내두를만하다. 18년간 브라질 산토스팀 주축으로 활약하며 1천2백16개의 골인을 날렸다. 전성기의 한해 최고득점은 1백39점!. 미국 코스모스팀에서 은퇴할때까지 생애총득점수는 1천2백81점에 달했다.

시합개시 호루라기 소리가 미처 지나갈 틈없이 번개같은 골도 터져나왔다. 1958년 영국에서의 게임이다. 꼭 6초가 지나자 상대방 네트가 흔들렸다. 가장 빠른 자살골도 영국의 차지다. 이것도 6초만에 헤딩으로 자기편 골문에 공을 밀어 넣었다.

멕시코에 가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세계강호를 물리친 흥겨운 기록을 세웠다. 세계를 뛰어넘을 발판을 마련했다. 내일을 향한 投資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낸다. 앞으로도 새기록의 창조는 계속될것으로 믿는다.

우리에게 또 하나 숙원이 남는다. 남북스포츠의 협력이다. 이 힘이 통일의 합심을 낳는다. 민족의 저력을 측정하고 과시할날이 언젠가는 온다. 숙원은 꼭 실현된다.

記者의 눈

길어질 여름放學

대학의 학기제는 수업과 방학이 언제시작되고 끝나는가를 나타내는지표이기도 하다. 사람이 봄과 겨울 이라는 계절을 갖듯 대학인의 계절을 구획지워주는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학기제 개편은 해방 30여년간 이어져 온 「大學의 季節」을 전환시키는 하나의개혁이다. 학기제 개편의 포인트는 길어진 여름방학에있다.

12주로 장장 3개월이 된 것이다. 여름방학이 길어진 이유를 문교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교수에게는 집중적인 연구활동의 기회를주어 자질향상에 기여할수 있고 학생은 모자라는 학문을 보충 심화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기회, 사회경험 증대 등의 잇점이 있다. 대학과 사회인에게는 대학을 개방함으로써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교부의 구상대로 여름방학이 그처럼 각각의 방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교수가 평소 여름방학이 짧아서 학문의 자기성찰, 연구업적을 등한시해온 것은 아니다. 교수의 강의빈도는 외국에 비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연구활동을 저해할만큼 많지도 않다.

여름방학이 아무리 길어진다해도 연구실에 파묻혀 있지않으면 연구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국외 학회와의 조화스런 연결을 위해 하기가 바뀌지고 여름방학이 길어졌다고 한다. 국내 교수들이 외국의학회와 연수에 순조롭게 참가할수 있어 학문의 정보 교환에 도움을 줄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학회와 연수시기가 맞지않아 활동에 지장을받아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학생들에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가. 부·업의 기회가 시간적으로 많아진다해도 실제로 그들이 학비를 조달할만한 일자리는 많지않다. 그다음 여름방학이 짧아서 사회경험을 덜한것은 아니었다. 시간보다는 환경에서 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에서 길어진 방학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여름학기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있는 졸업정원제하에서는 탈락률의 적용등 곤란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학기제 개편으로 모든 대학은 난방시설을 해야한다. 뜻하지않은 손실이다. 한겨울에학교수업을받아야하기때문이다.

대학의 학기가 어떠하든 대학과 교수, 학생의 자세에따라 대학은 발전하고 퇴보한다. 학기제가 외국의것과 같아졌다해서 대학이 좋아지는것은 아니다.

【李鍾九사회부기자】

17년만에 다시열린 파리 나토外相회의

佛言論들 나토의 군사復歸 조짐우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外相회의가 8일 파리에서 개막돼 3일간의 회의일정에 들어갔다.

파리에서의 나토외상회의는 지난66년 드골대통령시절 프랑스가 나토군사기구로부터 탈퇴한 후 17년만에 처음있는 일.

그때문에 이번 회의는 프랑스가 안보문제에 관한한 미국을 軸으로하는 親나토노선으로 복귀하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미테랑대통령이 좌파인 사회당출신인데다 미테랑대통령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 이번 회의가 열린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모르와수상은 9일 16개 나토회원국외상들이 참석한 나토각료이사회의 개막을 선포했으며 미테랑대통령은 나토의 방위전략에서 프랑스가 담당할 역할과 위치에 관해 연설했다.

한편 이곳언론들은 지난66년 12월의 파리회동을 마지막으로 파리를 떠났던 각료회의가 파리에 복귀한 사실은 프랑스의 「군사복귀」를 수반할 조짐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프랑스가 미국에 종속된 領地속으로 자신의 몸을 다시 던져 위치를 재확립하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1949년4월나토는 서방진영의 방위체제로 발족했고 프랑스는 미국 주도하의 집단안전보장기구에 투신했었다.

나토의 永續기구로 결성된 이사회는 각료급수준으로 1년에 2회씩열렸고 52년 사무국이 설치됐다. 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나토는 통합군을 결성, 西獨의 동부국경을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는 저지선으로 삼는 「前方戰略」을 채용했다.

그러나드골은독립노선을표방하면서核戰力구축정책을 발진, 파리에있던 나토본부와 유럽통합군최고사령부(SHAPE)의 프랑스軍을 철수시켰고 66년 프랑스는 나토군사기구로부터 이탈했다.

유럽의 운명을 미국에 일임하는 현상을 타파하고다국화를 촉진한 드골정책이 대서양동맹관계를 유보함으로써 나토사무국과 SHAPE는 결국벨기에로이사해야만 했다.

이런 나토유보정책은 후임인 퐁피두정권때 기본적 변경은 없었지만개개 정책은 조금씩 수정됐다.

퐁피두는 나토하부조직회의에 옵저버를 참석시켜 유보상태를 점진적 협력으로 바꾸었다.

지스카르·데스탱도 대서양동맹관계를 존중하면서 독립정책을 추구한다는한정적협조노선을택했다. 76년 訪美때 지스카르는 대서양동맹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發說로 親나토성향을 보였지만 깊이 빠져들지는 않고나토의 가장자리를 맴돌았다.

미테랑이 선거공약으로 親대서양주의를 분명히한것은 널리 알려진사실. 그러나 미테랑은 데스탱정책을 답습하는 정도였다.

82년의 베르사유정상회담때도 그는 불로뉴숲의 만찬형식으로 각료급실무회담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레이건의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미테랑이 「유럽에서 일본까지」를 묶은 윌리엄즈버그정치선언에 서명하고 17년만의 파리회담을 주관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사실상의 나토復歸로 상징되는 파리회의를 주관한것은 아이러니가 아닐수없다.

【파리=安炳璨특파원】

3·1운동등 用語만 회복

日중학 歷史교과서 검정

植民정책 合理化 흔적 여전 일부 "그릇歷史美化" 비난

내년 4월부터 사용될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에대한 검정결과가 드러났다.

문부성의 검정에의해 9일 확정된 중학교역사교과서내용은 「3·1독립운동」과 「침략」및 「강제징용」에 대한 용어는 되살아 났으나 여전히군데군데 「식민침략」에 대한 합리화에 급급한 흔적이 나타났다.

7개의 부분개정 검정을 끝마친 중학교과서중 교육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검정경위를 추적해봤다.

먼저 3·1독립운동부분에대해 집필자는 당초 『농촌에 독립운동 기운이퍼져 집회와 데모의 평화운동이 일어났으며 일본은 경찰과 군대로진압했다. 그러나 민중은각지에서 들고일어나 독립운동을 계속했다』고 썼다.

이에대해검열관은 『일본이 탄압했기때문에 봉기했다는것은 의문이며 폭동화했기때문에 경찰과 군대가 탄압한것』이라고 주장, 탄압에대한용어를 신중히할것을 요청했다.

검열관은 또한 평화운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일부 민중가운데에는 실력항쟁도 있었다』고 반론했으며 필자가 검열관을향해 그런자료가있으면 보여달라고 주장, 논쟁이 벌어졌다는것이다.

결국 3·1운동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집회와 데모등 비폭력의 운동이었으나 전국적으로 퍼져 농촌에까지 확산됐다. 일본은 경찰과 군대로써 진압했으나 민중은 각지에서 봉기, 독립운동을계속했다』고 고치기에 이르렀다.

또 3·1운동의 사건설명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인 약2만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필자의 원고에대해 검열관이 이의를 제기, 조선인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고 고쳐쓰게 됐다.

강제연행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징용된 조선인수는 70만명에 이르렀고 약4만명의 중국인도 끌려갔다는 내용으로 검정이 종용됐으나 이번에는 검열관이 집필자에게 강제징용된 조선인수가 70만에 달했다고 쓴데대해 동원이나 연행이란 용어를 쓸것을 종용했으며 당시 조선인은 일본국적을 가졌으므로 중국인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이의를 달았다.

이같은 과정을거쳐 결정후의 교과서는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수는 70만명에 이르렀으며 그밖에 약4만명의 중국인도 연행됐다고 고치기에 이르렀다.

그밖에 韓·日併合에 관한 기술에서는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皇民化정책은 민족의 자각과 긍지를 빼앗고 同化시키려했다』는 일본에 대해 검열관이 『일본의 同化정책과 皇民化정책은 조선인으로부터 민족의 자각과 긍지를 뺏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책의 수행결과 민족의 자각과 긍지를 뺏은것』이라고 이의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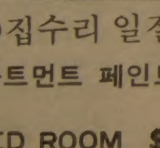
필자와 검열관이 논란끝에 皇民化정책은 민족의 자각과 긍지를 빼앗았다』고 고쳐 쓰게됐다.

필자는 많은조선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용, 광대한 토지를 國有地로했다고 기술했으나 검열관이 토지수탈대상을 농민으로 국한시킬것을 요구해 수정됐다.

이같은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의 논란끝에 3·1운동과 침략용어는 회복됐으나 구석구석에 식민정책에대한 합리화를 기도하는 검열이 계속되고있어 심지어 교육출판사의 교과서필자인 야자와(矢澤康祐·專修大)교수는「눈가리고 아웅식의 검열」이라고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NEW WHITE ROSE PAINTING



◎집수리 일절◎

아파트먼트 페인트전문

1 BED ROOM	$185.00
2 BED ROOM	$225.00
3 BED ROOM	$265.00

새봄맞이 단장을 원하십니까?

집페인트—스페샬가격

☎431－2019

Ontario

사회상설위원회

어린이 학대에 관한 문제

사회문제에 관한 상설위원회는 어린이학대 문제를 83년9월6일(화)부터 퀸스파에서 심의한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키 위해 본 위원회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의견서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의견서는 83년8월19일(금) 이전에 위원회 간사 앞으로 보내져야 한다. 구두진술 희망자는 83년6월30일(목) 이전에 간사에게 신청할 것.

ALAN M. ROBINSON MPP
위원장.

LYNN MELLOR
위원회 간사

주의사당 110호
Room 110, Legislative Building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1A2
Telephone: (416) 965-5774

한인최초의

CUT FLOWER 도매상

오직 주문에 한합니다

주문일자 6월15일(수)부터

CUT FLOWER만 취급

(화초는 취급 안합니다)

철저한 신용과 친절봉사

CRYSTAL'S FLOWER MART

366 Bloor st. W

☎927－8730(Mr. 리)

왜 이 운동이 필요한가

外國語는 액선트까지 익히는데 民族文化 살릴길은 國語醇化뿐

朴 甲 洙 <서울大교수·國語學>

『무지 좋다 애!』

『디게 재미 있지?』

영화라도 구경하고나오며 젊은여인들이 흔히 나누는 대화이다. 이들의 대화는 교양인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무지/디게」같은 말은 바람직한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여인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여인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국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제화하면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음운(音韻)、어휘(語彙)、문법、맞춤법 등 어느하나 온전한 것이 없이 모두 병들어 있다.

먼저 음운부터 살펴보자. 모든 말소리는 제소리값을 지니고 있는 것이건만 그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찌개/:/찌게/:/가개/:/가게/:/지개/:/지게/」는 어느 것이 바른 말인지 분간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초중학교의 많은 학생은 아예/애/:/에/의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사 소리는 된소리나, 거센 소리로 바뀌고있다. 「따다/쉬다」는 이미옛날 이야기이고, 「쎄련되다/쎄다/쌔것/쌩(生)」이 이미 젊은 세대에 정착하고있는실정이다. 장단음의 혼란은 더욱 심각하다.

이것은 아나운서, 더 나아가 선 사전의 표기까지 문제될 정도이니 그혼란상은 이루 말할 수없다. 변이현상(變異現象)에 따른 음가의 변동 또한발음이 엉망이다. 「굵다/넓다/밟고/읊고」의 올바른 발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외국어는 액선트까지 익히면서 우리말은 써 놓은 것까지 제대로읽을수없는지…。 이밖에 「ㅈ/ㅊ/ㅋ/ㅌ/ㅍ」등 받침이 연음될때「ㅅ/ㅜ/ㅍ」, 등으로 잘못 발음하는것, 이상한 어조(語調)의 발음등 음운상의 혼란은 매거하기 힘든 정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어는 약 30년전 일부 어휘의 사정에 그쳐 사전마다 다른 표준어의 제시는올바른 국어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문법면에서는 어법(語法)에 벗어난 비문법적인 표현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문장 성분(成分)의 잘못 된 호응, 존대법에 어긋난 말, 외국어의 영향에 의한 우리말 아닌 어색한 번역조의 표현 따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버님이 오라셨」라고 전하는 아들, 「지아비는 출타 했읍니다」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대하기란 실로 어려운 형편이다. 번역조의 문체는 글 아닌 구어(口語)에 까지 스며들어 새로운 언어공해로 등장하고 있다.

구어에 비해 문어(文語)는 비교적 정리 통일된편이다. 그러나 맞춤법은 여러가지로 혼란을 드러내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맞춤법의 기준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말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언어란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연모로서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그 기능으로 한다고 할수있다. 이렇게 볼때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진 우리말은 언어 본래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갈고 닦아 사상 감정을 원만하게 전달하는 연모를 만들어야할 필요를 느끼게된다.

언어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것이다. 국어란이러한언어 가운데 하나로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며, 그 정신을 깃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어를 민족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상은 19세기 독일낭만주의운동 진영에서 활발히 전개된 것이다. 홈볼트(Humboldt)같은 사람은 이러한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어를 민족과 동일시하여 「인간의 모든언어의 구조는 민족마다 그 정신적 특성이 다름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어에는 민족정신(民族精神)이 반영된다. 따라서 국어는 민족을 결속하는 거멀못이 된다. 이에 우리 선각자는 일제하에 국어를 연구했고 알퐁스·도데는 그의 소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랑스 알사스」프랑스 알사스」를 찾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어의 말살이 그 민족과 국가의 말살을 의미하며, 이의 애호 존중은 그 민족 국가의 부흥 발전을 의미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만주어의 경우는 전자의 예가 되고, 일제하의 우리 국어, 및 소련이나 독일 침략하의 폴란드어는 후자의 예가 된다.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어 순화가 필요하다. 문화의 창조 전승 발전은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민족 문화는 민족어에 의해 형성된다.

국어개량및 언어활동의 개선을 위해서도 순화는 필요하다. 국어순화란 국어생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순화(純化)와 대내적인 미화(美化)를 아울러 의미한다. 앞에서 국어의 실태를 살피고 순화의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않고 바람직한 언어로 개선하고 언어활동을 보다 원만히 하기 위해 순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전진하는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언어의 발전개혁을 의미한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우리 국어의 실상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1세기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이래 불어에 밀려 영어는 공용어로 쓰이지못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전체 어휘의 3분의2가 외래어로 메워지게 되었다. 이에 영국사람은 영어에 대해 열등의식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300년뒤 반불 감정의 고조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갈고 닦음으로, 오늘의 국제어로 발전시켰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거울삼아 갈고 닦을 때 어떤 다른 나라 말보다 훌륭한 국어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국일보에서 「국어는 아름답다」는 구호 아래 지속적인 순화운동을 펴고자함은 이런 의미에서 성원의 박수를 보내야할 일이다.

우리말은 아름답다

國語를 아끼고 가꾸기 위한 캠페인

醇化운동은 이렇게 各界의견

汚染된말의 치유방안 마련필요 日造語버리고 固有어휘 살려야

▲李基文교수(서울大·국어국문학)=우리언어문화는 깊은 병이 들어있다. 언어의 순화운동은 피상적이어서는 안되고 오염된언어를 깊이있게 치료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

예를들면 자연과학계통의 학술용어는 모두 원어로 쓰이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도 비슷한 실정이다. 언어는 학문과 예술의 표현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언어는 창조력이 중요하다. 언어기능이 제구실을 못하면 문화자체도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언어를 가꾸지 못한것은 민족자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학자예술가 문화인등 국민모두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국어를가꾸고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金華榮교수(高大·佛文學)=언어순화얘기가 있을때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를 예로 드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말이란근본적으로 규범을정하고 제한할수있는 한계가있다. 아름다운 국어를 쓰기위해서는 10개의 한림원보다는한개 TV방송의 역할이 더 큰것이다. TV에서 쏟아내놓는 말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어사전만해도 그렇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지금 국어사전을 갖고있지못하다고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사전은 국어학자한분이 단어 뜻풀이한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오늘 우리가 쓰고있는 문장과 문맥이 표현돼야 한다. 예문이 있는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朴金淳씨(한국부인회회장)=우리말은 감정、표현이 다양한것이 자랑이다. 특히 형용사、부사에는 발음과 뜻이 예쁜 어휘가 풍부하다. 가령「꾀꼴꾀꼴」은 발음도 예쁘고 리듬이 있으며 실지 꾀꼬리소리에 가까운 단어인데 일어에서는「가꾸개꼬」라고 표현한다. 닭우는소리 꼬끼오 또한 얼마나 친근감을주는 고운 말인가.

▲河瑾燦씨(소설가)=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차츰 빛을 잃어가고있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근래의 작품들을 보면 언어에 대한 감각은 눈에 띄게 세련돼 있으나 우리의 아름다운 많은 어휘가 자취를 감추어가는 것같아 안타깝다. 우리 말은 특히 많은 형용사를 가지고있는데 그 형용사를적절히 사용하려는노력이 부족한것 같고 또 우리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는 재래적이고 토속적인어휘의 사용을 기피하는듯한 느낌마저 든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어휘를 되찾아 살려나가야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韓粉順씨(여류시인)=부끄러운 속이야기지만 나의 詩에 스스로도취하는 때가 가끔있다. 길을 가다가도 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보면 문득 나의시 한 귀절이 떠오른다. 가령「새벽을깔고 지나가는/긴 은총의 숲이여/가지에 설레는 말씀/물 빛은 더욱 깊고/세상을 한 눈에 담아도/아프지는 않겠네」라고 외어보면 조금전까지만 해도 혼탁한 세상사에 시달렸던 피로가 말끔히 가신다. 그순간은 더없이 투명한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하다. 이럴때 나는 우리국어가 얼마나 소중하며 구구절절이 가슴을 파고들어 촉촉히 적시는가를 절실히 깨닫게된다.

▲이강로씨(檀國大교수·국어국문학)=우리말의 특성은 형용사·동사가 발달돼있고 모음조화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를들면 「검다」라는 표현이 30여가지나 된다. 「까맣다」는 작고 밝은 표현인데 비해 「꺼멓다」는 크고 음성적인 표현이다. 또 물결이 「출랑출랑」이란 표현과 「출렁출렁」이란 표현도 각기 다른 느낌을 준다. 한자어를 일본인들은 음과 뜻으로 동시에 읽는데비해 우리말은 음으로만 읽게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식조어법으로 바꾸는 작업과 잊혀진 우리말을 찾아서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상때부터 써온「붕장어」란 좋은말을 두고도 아나고란 일본말을 사용하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

▲허웅씨(한글학회이사장)=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는 일에는 그동안 너무 미지근했었다. 야생마처럼 거칠어진 우리말을 다듬는 운동을 한국일보사에서 벌인다는 기사를 읽고 무척 반가왔다. 신문、TV、라디오、잡지등 대중매체에서「국어순화운동을 도와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말은 국민의 가장큰 자산이다. 「우리말은 아름답다」는 캠페인이 성공하기를 빈다.

▲康鳳植교수(高大·英文學)=우리 글은 日語만큼 아기자기하지않고 歐美語만큼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투박하고도 다소 애매한듯한 용어는 도저히 외국어로 옮길수없는 멋을 띠고있다. 또 우리말은 액선트가 없는대신 호흡에따른 장단이 있어 그처럼 운율적일수 없다.

최근들어 외국어를 번역한듯한 말투가 자꾸 우리말에 끼어들고있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할것이다. 그대신 한글세대들이 구사하고있는 순수한 우리말은 우리의 토착적인 분위기에 맞는데 이를 적극 권장했으면 좋을것같다.

▲許圭씨(國立劇場長)=우리말의 아름다움은 우리말을 음악화해서 연기화술로 발전시킨 판소리를 들어보면 알수있다. 말 자체의 음운·음률속에 섬세한 표현력이 담겨져 있다. 기능만 강조되어 있는 우리 옛말들을 다시 되살리거나 각지방 방언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되살리는지름길이다.

담배 한대 물고

千 寬 宇 <本社顧問>

잠자는 公主

公主를 깨워줄 義俠의 王子는 언제쯤올까

새欄이 생겨 첫 打者가 된 오늘이 마침 本報창간 기념 다음 날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言論에 요즘 무슨 異變이 있느냐」고 비양대는 이도 있어서、近者의 언론에 관해 自省을 겸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딴 것이 아니다. 「정치관심사」니 「정치현안」이니, 그러한 문제때문에 여러 정치인들이 여러날째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느니,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느니…하는 보도는 여기저기 보이는데, 紙面만 가지고는 그 「현안」 운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었으니 異變이란 말이 나온 것일 것이다.

으슥한 밤길에 호랑이를만난 두친구가 서로 「저것봐、저것봐」 하더란다. 정신을차린뒤에 「왜 "저 호랑이봐" 하지못했어」 하니까 「"호랑이봐" 했다간 잡혀먹힐것같아 그랬지」 하더란다. 「저것봐」 했다고 살아났을까. 이번의 「현안」 등등의 말이 政治하는 쪽에서 나왔는지 言論하는 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표현속에서도 무언가알려주려고 언론이 애썼던 狀況을 政治쪽에서는어떻게바라보았는지는모르지만 言論쪽으로는 아무래도 씁쓸함을가눌수없다.

이 며칠째 「정치를 場外에서 場內로 수렴해야된다」는등 그 「현안」의 구체적내용이 제법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히 어저께는 「정치활동 被규제자의 후속解禁」문제로 여·야의 견해가 활자화되어 나왔다. 그런데 이름은 아직도 「현안」이다.

呪術에 걸려 기나긴 잠을자는 숲속의 公主를 깨워줄 義俠의 王子는 누구이며 또 그것은 언제쯤일까. 쉬이 臨時國會가 열린다니까 무슨 말인가 나올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며칠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言論公主는政治王子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되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줄거리는 이런 것인듯하다. 정치활동을 규제당하고있는 金泳三씨가 몇가지 요구를 내걸고 여러날 斷食을하다가 入院中이라는것、거기서 또 몇가지 정치적문제들이 派生되었다는 것。이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다.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싶어한 사람은 거의 다 안다고해도 좋을것이다. 「비밀」로 置簿해두는것도 며칠이지 벌써 20일이 넘었으니 말이다.

궁금하면 소식을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도 나오더라는 이도 있다. 잠만 자야했던 숲속의公主이야기처럼 요즘 세상이 그렇게 靜態的일수는 없는 것이다. 하도 답답해서 새삼스레 「政治風土刷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들춰본일이 있다. 법률을 잘 모르기는 하나 被규제자의 動靜을 보도 논평해서는 안된다는 조목은 눈에띄지 않았다. 그런데도 왠 일이었나.

金泳三씨의 단식이나 거기서 파생된 몇가지가 잘한 일이라든지 잘 못한 일이라든지 혹은 이 정치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한다든지 하는것은 順位가 다음이다. 眞相을 알고나야 찬성이건 반대건 다수의견이건 소수의견이건 모두를위한 좋은 방향이 잡힐것이 아닌가.

신문윤리강령을 들먹일 것까지도 없이 「보도는 사실의 迅速 忠實한 傳達을 생명으로 한다」는 원칙과 함께 「신문 최대의 책임은…公共의 利益에 충실하게 服務함에 있다」는 원칙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막상 실지에 부딪쳐 보면 이 兩面이 그리 쉽게 調和되지 않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근래에 더러 있었던 학생 데모 報道에서 요즘 언론의 고민의 한 단면 같은 것을 느끼는 수가있다. 사건 후 며칠이 지나, 아무개 아무개가 무엇으로 구속됐다는 간단한 보도다. 한편으로는、不安定의 요소를 波及시킬것은 없다는 신문 제작자의 판단이 깔려있다(나 개인의 소견으로도 절박한 이슈 없는 慢性的인 데모에는 공감이 가지 않지만)。또 한편으로는、그러나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우길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그러나 저러나 이런 형식의 보도라도、없는 것보다는 몇 곱절 낫다。「그랬었군」하고 넘어갈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현안」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公共의利益에도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은 安定 위주가 제작자의 판단이었다고 假定하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라면 몰라…별다른 해결의 기미 없이 20일이 넘도록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放置했을 까닭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된 것인가.

事實을 알리고 나면,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앞으론 어떻게 되어가나, 어수선한 궁금증이 따라 일어날 것 아닌가라고만 한다면, 그야말로 硬直된 思考요 無事安逸이다. 몇달 있으면 서울에서 국제의원연맹 총회도 열린다는 大韓民國이다. 이 정도를 가지고 국가의 安危를 염려할만큼 쉬쉬해야할 나라가 아닐 것이다.

「活字化할만한 뉴스는 모두 싣는 신문」—뉴욕타임즈가 지금도 매일 첫페이지 머리에 싣고 있는 이標語는 엄청난 自矜이요 또 스스로의 무서운 다짐이다. 묵살해 버려도 그만인 시시한 사건은 어느날이고 얼마든지있다. 그러나 「현안」이라고 슬쩍 비추는 정도라도 連日이 되고보면 그것이 「활자화할만한」사건임에 틀림없고, 그러면서도 正體를 드러내지 못했다면 언론이 멍들어가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公務員을 지낸적이있는 어떤분이 가끔 「당신、私立신문사 다닌다며」 하고 농을한곤했다. 물론 逆說의 칭찬이었다. 「사립」 언론기관들이나 「사립」 언론인들이 멍들기로서니 天下大勢에 무슨 상관이냐 할사람은 없을것이다. 있을수 없는 想定이지만、신문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곧이 못듣겠다고 하는 날이 만일에 온다도 과연 천하대세에 상관이 없을까.

【附記】첫날부터 변명이라 송구스러우나、뉴스는 朝夕變이라、이 글을 草한지 얼마 안되어 金泳三씨의 단식 경과의 보도가 나왔다. 「담배 한대 물고」는 것이려니 하고 읽어주었으면한다.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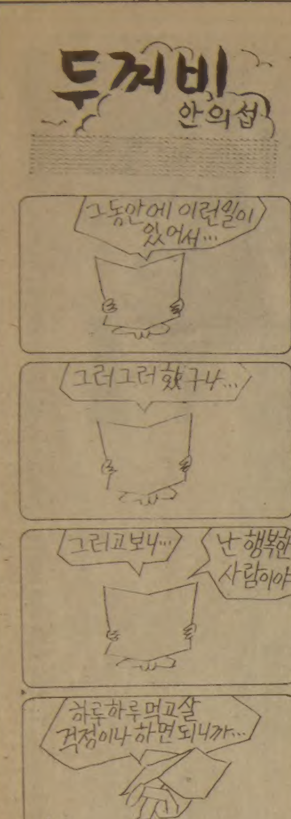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都心대로변서 없어진다

보신탕 뱀탕 개소주 토룡탕 용봉탕

내무부, 85년까지 移轉·신규개설抑制 지시

보신탕, 뱀탕, 개소주집등이 도심대로변에서 사라진다.

내무부는 9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 큰길가에 산재해있는 이같은업소들이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업소라고 규정, 오는 85년까지 도심지 간선도로, 호텔 경기장주변과 관광지 주변에서 이전시키라고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대상업소는 뱀탕집 보신탕집 토룡탕 용봉탕 굼벵이집 개소주집등 소위 보신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로 이들은 현재 대도시 간선도로변이나 관광호텔 주변에까지 무질서하게 들어서 도시미관과 관광여건에 장애를 주고있는것으로 지적돼왔다.

내무부는 관광분위기 조성계획을 곁들여 이같은 업소이전계획을 강력히 추진키로했는데 이와함께 신규개설도 철저히 억제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업소들은 눈에띄지않는 뒷골목이나 각시도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해야되고 불량업소로 적발되면 폐쇄해야된다.

이같은 업소의 영업금지 지역은 가로명이부여된 대도시 간선도로변이나 지방도시의 간선도로 해수욕장과 각종경기장주변 관광단지주변등이며 호텔의 경우 반경50~1백m 이내에서는 뒷골목이라도 영업할수 없게된다.

내무부는 85년까지 완전 이전을 목표로 우선선전깃발과 표지물을제거하고 혐오감을 주는 물체의 외부노출이나 진열을 단속하며 독특한 냄새가 업소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호2항 식품접객업소 영업제한규정에 따른것으로 지역별로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했다. 내무부가 집계한 이들혐오업소는 전국 46개시지역만 1천1백71개소로 밝혀졌으나 계절에 따라 무질서하게늘어나 그 숫자가 더많은 실정이다.

병원서 重患者증발

入院4일만에… 7개월째 소식없어

【馬山】 중환자가 병원에 입원한지 4일만에 증발된 후 7개월째 소식이 없어 가족들이 애태우고 있다.

지난해 10월23일 馬山고려병원에 위출혈증세로 입원한 成義雄씨(43·경남昌寧郡昌寧邑述亭里)가 간호하던 부인 김정순씨(41)가 집에 다녀온 27일 상오 10시부터 하오6시 사이에 증발되었다.

부인 김씨와 병원측은 당시 기동이 불편한 成씨를 찾았으나 추적할수없어 다음날 경찰에 成씨의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成씨의 행방을 전국에 수배했으나 현재까지 찾지못하고 있다. 【聯合】

公園묘원 同業미끼 4천만원 詐取

【釜山】 부산시경은 9일 자공원묘원을 동업하자며 자본주를 꾀어 4천여만원을 사취한 李鳳三씨(42·부산南區龍美洞155)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남梁山郡上北面外石里소재 李錫俊씨(47) 소유 임야 25만8천여평에 공원묘지를 건립키로하고 가칭 재단법인중앙공원묘원(부산東區凡一洞 가유상가47호)이란 회사를 설립한뒤 자본주를 물색하던중 지난해 10월20일 의류상회를 경영하는 강또임씨(41·부산中區大廳洞4街79)에게동업하자고속여 3차례에걸쳐 4천여만원을받아왔다는것이다. 【聯合】

모기로「腦炎모기」잡아

국립 保健院, 집모기機能 확인

모기로 뇌염모기를 잡는 방제방법이 나왔다.

국립보건원 洪漢基 매개곤충과장은 9일 연세대에서 열린 14차국제열대의학세미나에서 인체에 무해한 식충 집모기가 애벌레때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모기와 가축이나 사람의 피를 빠는 중국 얼룩날개모기, 빨간집모기, 한국숲모기등을 잡아먹는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식충집모기를 인공으로 대량길러내면 뇌염모기의 방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결과 식충집모기가 애벌레상태(장구벌레)에서 하루동안 작은빨간집모기의 애벌레를 잡아먹는양은 22·3마리, 빨간집모기는 12·3~79마리, 중국얼룩날개모기는 24·8마리, 한국숲모기는 17·7마리를 각각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 533-2361

탄허스님 영결식

【月精寺】 呑虛 대종사 영결식이 9일상오11시 강원도平昌郡 月精寺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 간부스님을 비롯 일반신도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사진)

이날 영결식은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법주탁어·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조계종정 李性徹스님을 대리한 원로회 부회장 姜昔珠스님의 법어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계종 黃晟經총무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呑虛스님은 폐허된 월정사를 훌륭한 대가람으로 중흥시키고 이나라 불교발전에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히고 『呑虛스님이 남긴수많은 저서는 길이 이나라 불교사에 기록될것』이라고 말했다. 【聯合】

銅雀區廳 철거반장 뇌물받은혐의 拘束

서울지검南部지청은 9일 전銅雀구청 주택과소속 무허가건물 철거반장 元廣載씨(3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元씨는지난 1월6일 서울銅雀區大方洞 차모씨(29·여)가 건축중인 무허가 4층건물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해주고 전大方洞 동사무소직원 朱光宣씨(41)를 통해 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元씨와 朱씨는 지난4월초 이같은 사실이드러나자 면직됐었다.

氣象情報 제공업무 비영리法人이 맡게

상업정보로서 기상정보의 이용도가커짐에따라 중앙기상대로부터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상정보제공업무를 맡게된다.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상업무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하면 중앙기상대장의 업무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기상자료의 발간및배포, 기상 기술의 지도및보급을할수 있으며 이에따른 수수료도 받을수있게됐다. 【聯合】

5行뉴스

◆5세어린이 우물빠져 숨져

【全州】 8일하오5시50분께 전북 高敞郡雅山面中月里 중복부락 공동우물에 이마을 차세근씨(38)의 장남 병진군(5)이 빠져 숨졌다. 병진군은 이날 부모들이 들에나간 사이 우물가에서 두레박질을 하고놀다 2m깊이의 우물에 빠져 변을 당했다. 【聯合】

◆철길걷다가 기차에치여

【裡里】 8일밤 11시57분께 전북裡里시 銅山洞 전라선 철길에서 25세가량의 남자가 여수발 서울행 210특급열차(기관사 김복동·47)에 치여 숨졌다. 【聯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성급했던 木浦의「2종醫保」

결국은 시행錯誤

◇문제점은 너무많다… 木浦市에 제2종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만1년, 병원문턱은 낮아졌지만 안고있는 문제점은 너무 많다.
【木浦성골롬반병원에서=權周動기자찍음】

"처음부터 地域선정 잘못"

所得무시한 保險料… 1종보다 30%나높아

일부醫·藥師들 다른지역으로 떠나버리기도

【木浦=이동사회부 丁燕·金宗來기자】 회의론 속에서 어렵게출발한 제2종의료보험(농어민및 자영자등상대)이 시범실시된지 2년이 다가온다. 성과는 현정착하기가 어렵겠다는 현지의 반응. 국민개보험(皆保險)실시를 위해서는 언제인가 해결해야할 숙제긴 하지만 지역주민의 경제능력, 의료관행등을 무시한 이「시도」는 결국 시행착오를 겪고있는 것이다.

82년7월1일 도시로는 처음 모델이된 木浦시의경우 보험료시비로 전화압류 소동까지 일어나는가하면 부작용이 심화되자 개업의와 약사들이 타지역으로 떠나가는 기현상까지 빚고있다.

9일 木浦의료보험조합의 관계자가 지적한 木浦의료보험의 문젯점은 우선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보험료다.

의료보험조합관계자에의하면 木浦市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6천5백~7천원의 수준으로 제1종보험에비해 30%정도가 비싼셈이다. 특히 소득에 따라서 月최저 1천5백원에서 최고2만원까지 부담하게돼 있어 고액으로 책정된 세대는 보험료납부저항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따라 상당시민들은 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징수율도낮아 60·9%의 수준. 木浦의료보험조합은 진료를 받고서도 보험료납부를 기피한 5백46세대가운데 1차로 1백16세대에대해 전화압류신청을 木浦전화국에 넣을정도다.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보험징수 목표액은 13억2천만원이나 징수액은 8억5천만원에 불과, 중앙의료보험조합중앙회로부터 9천9백만원을 빌었으며 진료비청구액을 충당하지 못해 60·3%만 지급하고 5억원정도는 미지급상태에 있다.

이에따라 木浦市의사회(회장 丁大斗)산하 44명의 개업의들은 이달말까지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지않으면 2종의료보험지정을 의반납하겠다고 진정서를 의사회에 일괄제출해 놓고있다. 의사회장 丁씨는『국민개보험전제라는 점에서 제2종보험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처음부터 지역선정이 잘못돼 실시1년만에 문젯점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3~4개월씩이나 늦는부작용이 계속돼 지난1년간 6명의 의사가 木浦만도 떠났다고 말했다.

또 木浦市약사회의 金榮天총무도『의·약분업이 안된실정에서 제2종보험을 실시한것은성급했다』고지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약국의 P약사는 의사에따라서는 약국에 처방전을 떼주기를 기피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마진이 높은 약은 병원에서 지어가도록하고 마진이 낮은것만 주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고 불평했다.

약사회에 의하면 약국 개소의경우 하루처방전이 30~50건이 되어야만 현상유지가되는데 요즘엔 80개약국에 하루2백건에 불과, 1년전에 비해 수입이 30%정도 줄었다는것. 이에 따라 지난1년간 6개약국이 문을 닫았는데 木浦시의경우 해마다 1할정도씩 약국이 늘어야 정상이라는주장이었다.

또 가정주부 金英子씨(木浦市 竹洞)는『의료보험이 실시돼 좋은점도있지만 병원에서 처방전을떼면 제도는 불편한 점이많다』고 말하고 자신의 경우 보험료가 지나치게 책정되어 현재 3개월째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81년 7월1일부터 실시한 沃溝·軍威·洪川郡등 3개郡의 경우도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代여인 變屍體 하반신없이 發見

【裡里】 8일 하오4시30분께 전북裡里서 木川洞 목상마을앞 전북 농조수로에서 하반신이 잘려나간 40대 여자변시체가 떠내려오는것을 순찰중이던 裡里경찰서 木川洞파출소 金광평 순경(45)이 발견했다.

完州郡東上面 大雅里저수지쪽에서 떠내려 온것으로 보이는 이변시체의 여인은 커트머리에 얼룩이 꽃블라우스에 흰줄무늬가있는 V자형 밤색봄내의를 입고 있었다. 【聯合】

"공부하라"꾸중에 高校生 목매自殺

【井州】 9일상오9시50분께 전북井邑郡古阜面南福里13 김봉열씨(67) 집 헛간에서 김씨의 막내아들 성호군(17·J농고1년)이 높이 2·5m의 헛간대들보에 새끼줄로 목매어숨져있는것을 아버지 김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군은 8일 하오5시께 아버지로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지않는다고 꾸중을들었었다. 【聯合】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權力가진자 行悖극심"

귀순鄭範鎬씨 北韓실정폭로

◇북한사회의 참상을 폭로하는 鄭範鎬씨.

지난1일 臨津江을 헤엄쳐 월남, 귀순한 鄭範鎬용사(45·강원鐵原郡신탄사업소 벌목노동자)가 9일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순경위와 북한동포들의 어려운 생활등을 폭로했다.

鄭씨는 鐵原郡정동리 마을 노동당 세포비서란자가 아내 安순례여인(49)에게『입당시켜준다』며 유혹, 농락한다음 이사실을 알고 鐵原재판소에 이혼소송을 낸 자신을 병원운전사직에서 벌목노동자로 내몰았다고 밝히고『당원의 미움을 산이상 멀지않아 북쪽 산간지역으로 추방될것이란 불안에서 생사를걸고 임진강에 뛰어들어 자유대한으로 건너왔다』고 귀순동기를 말했다.

鄭씨는 평소 남한실정을 알길이없었지만 88년에서 올올림픽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남쪽이 분명 잘사는곳이라고 믿게됐다고 전했다.

鄭씨는 북한사회에서는 당원, 사회안전원, 행정간부등 권력을가진자들이 각종 생필품을 매점하여 비싸게 밀매하거나「입당」을 구실로 부녀자들을 농락하는등 갖가지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정가격이 15전하는 소주1병이 이런 권력층에서 다 사버리기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은 2원이나 3원을 주어야산다는것.

이같은 물자부족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민과 군부대사이에 먹을것과 입을것을 몰래바꾸는 물물교환행위가 많아졌으며 金日成은 이런 물물교환행위가 경제계획에 차질을 준다고 하면서 방지대책을 지시했다고 鄭씨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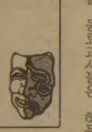
鄭씨는 북한의 鐵原郡에는 화물차량이 1백대쯤있으나 연료난으로 90%가목탄열용엔진으로 바꿨으며 가동률은 20%에 지나지않으며 버스도 13대중 3대만 운행되어 버스를 타려면 하루전에신청하고 순서에따라 탑승이 허락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58년부터 북괴는 사상불량자로 지목되는 전방지역주민을 함경도등 산간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는데 鐵原에서만도 4백여 세대가 북쪽으로 쫓겨가고 5백세대가 이주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극복했어야 했다

暴力교사로 몰려 自殺한 表 哲씨

숲을 보지못하는 現實에 挫折



주위에서 범상치않은 사건이터지면 사람에따라 느끼는 충격이 다르다. 지난7일 폭력교사로 몰린것을 괴로와하다『젊은 교사가 비굴하게 흔들거리며 가늘게 살기란 참을수없는 고통』이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학교교실에서 자살한 서울月溪중학교교사 表哲씨(26·사진)의 죽음이 한 본보기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동료교사들은 각각 느끼는바가 달랐다. 학부형들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두려움을, 동료교사들은 허무감을 느꼈을것이고 학생들의 어린가슴은 슬픔으로 가득찼을 것이다.

表교사는 지난3월14일에부임, 80여일간 교단에 섰다. 사회의때가 묻지않아 순수하기만 했던 그는 수업을 태만히하는 학생을 용납할수가 없었다. 체벌을 가했고 그결과 장파열이란 부작용에 폭력교사로 몰렸다. 열정이 몰고온 순간적인 과잉 체벌 앞에서 젊은 꿈과 의지가 산산조각나는 아픔을 겪었음이 틀림없다.

모든일이 정이없이 행정적차원에서만 처리되는 차가운 현실앞에서 소대장시절 DMZ를 누비던 용기도, 정성을 다해 키워주신 어머니도 사랑하는 애인도 그의죽음을 붙잡지못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남긴유서에서『모두들 씩씩하고 용기있는 강한 남학생들로 키우고 싶었다』고 패기만만한 열혈청년으로서의 정열을 그리고있다.

그는 짧은 재직기간중 체험한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비탄도 잊지않았다.『장사꾼같은 교사들과 무사안일, 사랑없는 교육, 사명감의식·자존심없는 행동들은 자신의 양심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다짐했다.

表교사는 독실한 기독교가정에서 자라 명문대 체육과를 나왔다.

부족함이 없을듯한 表교사가 왜 죽음이란 막다른 길을 택해야 했을까. 그것은「폭력교사」라는 낙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며 만사를 처리하려는 숨막히는현실에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그는 그시련을 극복했어야 했다. 【宋大洙기자】

"同點골은 못준다" 先制지키기 숱한고비
아슬아슬 조마조마 90分

金鍾建·金鍾夫 통쾌한 1골씩
세계 청소년 축구 응원 1백여 교포들 감격의 만세
멕시코放送 "붉은 유니폼의 귀신" 격찬

◇金鍾建 첫골 환호 金鍾建선수가 전반17분 멕시코에서 벌어진 제4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A조예선 濠洲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후 동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있다. 【토루카 (멕시코) 8일AP組=聯】

【멕시코시티=安奉煥특파원】감격적인 순간이다. 장신濠洲를 2-1로꺾고 사상처음 8강의문을 열어놓은 한국선수들은 얼싸안고 기뻐했다. 吳完建단장 朴鍾煥감독 元興載코치도 눈물을 괴었다.

토루카 경기장 한구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응원한1백여동포, 유학생, 대사관직원들도 한국선수들을 에워싸고『대한민국만세』를 외쳤다.

수훈선수인 金鍾建·金鍾夫를 비롯 벤치를지킨 선수까지 18명모두가 멕시코에서 탄생된자랑스런 얼굴들이다.

이날 멕시코 방송은 붉은색유니폼의 한국선수들이 전반에 그라운드를 누비며 2점을 선제하자『붉은귀신들』이라고 격찬했고 멕시코 팬들도『꼬레아! 꼬레아!』를 연발했다.

한국은 경기초반부터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다. 경기시작 17분만에 HB金鍾建이 첫골을 뽑은뒤 전반34분 FW金鍾夫가 한골을 추가, 전반을 2-0으로 리드, 대세를 굳혔다.

한국은 후반7분 濠洲의 브라운에게 1골을 허용한뒤 경기종료까지 여러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끝까지 1골의 리드를 지켰다.

한국은 조직력과 돌파력이 앞섰고 한국이빼낸 결승골은 팀플레이에의한 완벽한 작품이었다.

한국은경기종료4분전濠洲 리카타의 슛이 골포스트에맞고 튀어 결정적인위기를 벗어났다.

한국의 스타팅멤버는 GK 金豊柱 FB 文元根 張政 俞炳玉 金判根 HB 金鍾建 盧仁佑 FW 李太炯 申連浩 金鍾夫 李賢哲이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4·2·4전법으로 공격에 치중, 一字로선 濠洲수비를 쉽게 뚫었다.

濠洲는 예상대로 수비에서 롱패스에의한 공격에으로 기습득점을 노렸지만 끈질기게 따라붙는 한국수비를 뚫지못했다.

한국은 후반들어 4·3·3전법으로 바꿔 수비를강화, 濠洲공격을 1골로 묶어 승리로 이끌었다.

9일은 휴식. 이날 이름을가진 HB 金鍾建과 FW 金鍾夫의 날이었다. 金鍾建은 전반17분 호주GK 프리켄이 골킥을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볼을 차단, 그대로 30m롱슛을 성공시켰다.

프리켄이전혀생각지도않은 과감한 슈팅이었다. 관중들은전반34분째의새있는 플레이로 이어져 깨끗한추가골을 터뜨린 한국팀에게 기장이 떠나갈듯 박수를보냈다.

왼쪽 미드필드로 돌진하던 FW申連浩가 오른쪽날개 李太炯에게 크로스패스 李太炯은 골라인 부근까지 볼을끌고가다 골문으로 뛰어드는 FW金鍾夫에게 어시스트, 金은 가볍게 인사이드슛으로 결승골을 따냈다.

GK金豊柱는 전반6분 브라운의 문전기습공격과, 15분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서날린 호주선수의 슛을잘 막아냈다.

濠洲는 후반7분 브라운이 미드필드중앙에서 볼을 빼앗아 패스하려다 그대로때린 롱슛으로 1골을 만회했다.

후반 8분 FW 李賢哲이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서 강슛을 날렸는데 GK 프람켄이 손으로 쳐 크로스바를 넘겼고 후반 19분, 27분, 29분에도 골을 올릴수 있었지만 호주 GK가 선방했다.

▲A조최종전 전적

한 국 2 (2-0 / 0-1) 1 호 주

선제공격작전 성공

▲朴鍾煥감독의말=호주에 패하면 8강진출이 좌절된다는것을 선수들이 잘 알고 있기때문에 최선을다해 결사적으로 싸웠다. 선제공격을 한것이 적중했다. 후반들어 힘이빠진 링커를 교체하고 4·3·3전법으로 수비를 두껍게 싼것도 승리의 하나이다. 다음게임도 잘싸울수 있을것이다. 4강진출도 불가능한일은 아니다.

초반수비허술 失策

▲케인·플러그 호주감독의말=전반전에서 한국팀이 경기장을 마음대로 휘젓도록 놔둔것이 큰실책이었다. 후반전에 2골정도를추가, 승리할수 있었는데 아깝게 놓쳤다. 한국은 후반에 지친것으로 보였다. 한국이 오늘의 승세를 유지한다면 결승에오를 가능성도있다. 한국의 기술과 축구 스타일은 훌륭했다.

관중들 "코레아" 환호하며 사인공세도
中共심판 中共機사건처리 감사표하고

◆…승리를 거둔 한국선수단이 경기장을 나서 버스에 오르자 토루카시민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선수단 버스를 둘러싸고 사인공세를 펴 선수、임원들은 진땀을 뺐으며 차창에까지 매달려 사인을 요구하는바람에 한동안 버스가 출발하지 못했다.

◆…한국선수단이 토루카市 교외에있는 호텔로 돌아오자 申東元駐멕시코대사를 비롯, 대사관직원과 교민들 1백여명이 호텔정원에서 축하연을 베풀었다.

申대사는『축구의 고장 멕시코에서한국대사관이나 동포들이 할수없는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어 자랑스럽다. 앞으로는 어깨를 쭉펴고 멕시코를 활보할수있겠다』고 선수들을 치하했다.

申대사는 全斗煥 대통령이 선수단에 보낸 축하전문을 직접 낭독, 앞으로남은 경기도 선전, 국위를선양할것을 당부했다.

이날 축하연에는 토루카市 축구협회임직원들도 참석했다.

한국인들은 한국축구가 승리하기전까지만해도 멕시코시내를 다닐때 일본인으로 오인됐으나 한국축구가 멕시코를 꺾은후부터는 일본인들이 한국인으로 착각될정도.

◆…대한 축구협회 柳鉉哲이사가 6일 국제심판들이 묵고있는 멕시코 센트럴 호텔에서 중공심판으로부터 중공기피납사건때 보여준 한국인의 후의에 대한감사의뜻을전달받았다.

중공국제심판 張多敎씨는 柳이사를 보자 한국사람이냐고 묻고는『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에 감사한다. 중공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감정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내용

한국		호주
17	슛	10
6	코너킥	11
8	프리킥	6
0	페널티킥	0
14	골킥	16

◇예선최종전적

	승	무	패	득	실	점
▲A조						
①스코틀랜드	2	0	1	4	2	4
②한국	2	0	1	4	4	4
③호주	1	1	1	4	4	3
④멕시코	0	2	1	3	3	1
▲B조						
①우루과이	2	1	0	6	3	5
②폴란드	2	0	1	0	5	4
③미국	1	1	1	3	5	2
④아이보리코스트	0	1	2	2	8	1

〈C, D조는 예선진행중〉

오늘의 快擧 내일까지 이어지게…
─세계청소년대회 8强진입 意義와 한국축구의 앞날
96개국 1천만선수와 겨룬 값진수확
중흥의 起爆劑…成人팀 수준향상계기로 삼아야

한국의 젊은사자들이 멕시코에서 세계8强에 우뚝섰다. 제4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8강진출은 한국축구사에 새로운 문을 열어놓은 쾌거다.

한국스포츠는 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구기종목으로는 처음으로 여자배구가 올림픽 銅메달을 차지하여 빛나는 결실을 맺었지만 한국청소년축구의 8강도약은 올림픽메달에 뒤지지않는 값진 수확으로 높이평가되고있다.

이번대회본선진출권(16팀)을 따기위해 세계6개지역예선에 참가한 나라는 96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최근 통계에 따르면, 펠레와 마라도나를 꿈꾸며 축구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무려 1천1백87만3천3백23명이나 된다.

이 벽을 뚫고 한국은 세번째 세계도전에서 8강의한자리를 점령했다。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

청소년 축구의 수준과 규모、인기가 월드컵에 미치지 못하는것이 사실이지만 청소년 무대에서 각광을 받은 선수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축구의 주역으로 활약한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축구중흥의 기폭제 구실을단단히 해낸 셈이다。

한국축구는 54년 스위스월드컵과 64년 東京올림픽이후 한번도 세계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다。난공불락의 城은 없다는것을 우리 청소년들은 유감없이 보여주었다。형만한 아우가 되기위해서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강화대책과 함께 대표선수들의 정신무장이 선결과제다。

예선A조결과를 놓고보면 한국청소년의 전력은 세계수준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가장 큰문제는 청소년의 수준을 어떻게 성인축구로까지 계속 이끌어 발전시켜 나가느냐하는점이다。청소년때에는 잘하다가도 대학에 들어가고 실업팀에 몸담게되면갈팡질팡、뒷걸음질쳐 아시아지역에서도 허덕이는것이 요즘 한국축구의 어두운 현실이다。축구로부터 고개를 돌린 관중들을 그라운드에 다시 끌어들이고 축구선수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누리게 된다면 축구는 멀지않은 장래에 다시 일어설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항상 정신력과 체력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기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부딪치는문제(고도한 개인기)를 해결해야 할것으로 보인다。축구는 11명이 하는 단체경기이지만 선수개개인의 개인기가 뛰어나지 못하면 강한팀을기대하기 어렵다。고추와 마늘냄새가 짙은 한국적인 축구스타일개발이 연구과제로 제시되고 있다。한국선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경을전술적으로 체계화해보자는의견이다。

이제 계단 한개는 넘었다。정상까지의 길은 아직 험하다。8강진출에 도취않고 다시 4강을 새로운 목표로 세워놓고 출발할 때다。【멕시코시티=安奉煥특파원】

프로야구 對三美戰 완봉승
마운드에 다시선 해태 金城漢
金勇男고장 뜻밖의 活路
시즌逆轉우승 발판 마련

◇金城漢

金城漢이 다시 마운드로 돌아왔다。뛰어난 타격솜씨를 살리기위해 타자로서 외길을 고집하던 金城漢도 눈앞에 다가온 팀의우승찬스를 외면할수는 없었다。

『구장에 도착해보니 배팅오더에 내이름이 빠져있었다。의아해서 물으니 선발투수라고 일러주었다。뜻밖이었다』

8일 우승을 다투는 三美와의 3연전 두번째경기에 선발로 등판한 해태의 만능스타 金城漢은 코너를 찌르는 무거운 직구로 괴력을 떨치던 三美타선을 5안타·삼진4개·포볼2개로 완봉, 해태를 전기시즌 역전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金의 완승은 에이스 金勇男의 고장으로 불안해진 해태 마운드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선두 三美를 0·5게임차로 추격한 해태로서는 시즌 종반 역전드라마의 서곡과 같은 가슴부푼 선물이었다。

『지난해 입단할때나 금년 연봉조정때에도 투수로서의 역할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구단측에 투수·타자의 이중역할에대한 대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도 않았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金城漢은 개막전 동계훈련도중 허리를 다쳐 투수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시즌막바지 우승을 목전에 두고 쾌투하던 에이스 金勇男이부상、어려워진투수 로테이션을 보며 金城漢의 가슴에 동요가 일어났다。

金應龍감독이 농담처럼『三美와의 3게임중 한게임은 맡아야지』라는 말에 릴리프 정도로 등판하리라 마음을 다졌다。

『투수연습이 전혀없어서 변화구 컨트롤이 전혀되지 않았다。용케 코너를 찌른 직구에 三美타자들이 이끌려다녀 쉽게 승리를거두었다。팀에 1승을 더해 기쁘다』

지난해 10승5패1세이브를 기록한 金城漢은 해태가 그나마 4위라도 할수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82년 타점왕(69점) 타격10위(타율0·305)홈런4위(13개)를 기록한 金은 타석에서나 마운드에서나 또 내야수로서나 해태공수의 중심을 이루는 8방미인이다。

금년 타격 역시 3할대를 지켜 8일현재 1백42타수 47안타(타율3할3푼1리)로 타격2위。

『좋은 타자가 되기위해 투수역할은 원치않는다。그러나 팀의 우승을 위해 한두게임은 더 던져야 할것같다』

金應龍감독이나 해태구단은 든든한 金城漢의팔에 프로야구 첫우승의 꿈을걸고있다。【方錫嶋기자】

프로야구

三美 불안한 先頭
해태에 2連敗…0·5게임差

승차 0·5。에이스金勇男의 고장으로 고심하던 해태마운드에 구세주 金城漢이 나타났다。

타자로서의 길을 고집하던 만능스타 金城漢은 8일 光州에서 해태선발로 등판、三美타선을 5안타、2포볼、삼진 4개로 잠재우고 금년시즌 투수데뷔전을 완봉승으로 장식했다。

해태는 金의역투에 힘입어 22승1무15패로 24승16패의 선두 三美에 0·5게임차로 따라붙고 역전우승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롯데·三星戰무승부 일시정지게임 번복

롯데-三星전은 11회까지 연장 경기를 벌인후 일시정지 게임으로 선언됐으나 한국야구위원회는 9일 무승부 게임으로 마무리지어 대회운영의 일관성을 잃었다。

◇8일전적

◆광 주

삼미	000 000 000	0
해태	000 401 00×	5

◆부 산

삼성	000 020 000 00
롯데	110 000 000 00

롯데〈연장11회일시정지〉

▲홈런=張孝祚(5회·2점·삼성)

張吉山 <176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23)

여황은 대전리를 떠나기전에 군중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우리가 한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우(大雨)의 천변(天變)을 맞아 번복되는 도성을구원하고 천민들이、스스로 나라를 세워 마음놓고 화평하게 사는 계두성(鷄頭城) 용화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장차 밝아올 미륵의세계에서는 온갖 악한것과 욕심과 상극이 모두 사라지고 서로 사이좋게같이 사는 화평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재물은 나누어질 것이며 땀흘리고 수고하는 보람도 똑같아질 것입니다。땅은 기름지고 풍족하며 병고와 가난이 사라져서 계두성에서는 누구나 문물의 혜택을 고루 받게 됩니다。밤이면 늘 향기로운 자비의 비가 내려서로 이웃 걱정을해주며 원귀들도 스스로 한이풀려 세상을 돕게 되고 정치와 교화는 일체를 이루어 하늘의 도가 땅에 내리게 됩니다。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은근히 잠재하여 있을뿐 크게 드러나지않으며、사람들의마음도 어긋남이 없이 평등하여 만나면 즐거워하고 착하고 고운말을주고받으며、뜻이 틀리거나 어긋나는말이 없어서 온세상이 성인의 도를 이룹니다。금은보화 진주보석 마노 호박이 땅위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는이가 없을 것이며、오히려 서로 이상히 생각하여 말하기를、옛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며 아우성치고 잡혀가고 옥에 갇히는등 수없는 고생을 하였으나、용화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땅이나 돌처럼 여길뿐 재물로써 아끼고 탐내는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던져버릴 것입니다。우리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소문으로들던 정진인(鄭眞人)이 출현하셔서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진인께서는 다른 힘센 나라에 시달리지 않게 일곱가지 보배를 가지고계십니다。천하를 이겨낼 금륜보(金輪寶)와 광명을 지켜 주는 여의주(如意珠)와 현자를 낳는 옥녀보(玉女寶)와 칠보를 만드는 수장보(守藏寶)와 기병 보병 병기를 만들어내는전병보(典兵寶)와 왕이 천하를 편력하는데 쓰는 마보(馬寶)와 물위를 걷는 상보(象寶)를 말하는데 진인 께서는 이 일곱가지 보배를세워 천하를 다스릴뿐 무기나권력으로 억누르지 않지만 모든 적을 저절로 항복받게 되십니다。지상의 모든 보화와 곡식의 창고는 열려져서 가난한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며 그누구도 다시는쓰고 남을만큼의 재화를소유하지 않으며 영원히그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백성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법밖에 필요가 없습니다。남에게 베풀고 돕는 법(施論)과 스스로 계행을닦는법(戒論)과 하늘나라에 살듯이 세상을 이루는 법(生天之論)과 욕심은 더러우니 버려야한다는 법(欲不淨想)입니다。온 백성은 누구든지 번뇌를 끊고 청정한 법안(法眼)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속진(俗眞)과 정교(政敎)가 일치하게 될적에 위없이 바르고참다운 도(無上正眞之道)가 현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江陵高 8强에
청룡기 中高야구

◆고등부2회전(8일)

광주상	010 000 340	8
배명고	200 010 000	3

▲홈런=韓光洙(7회·3점·광주상)

전주고	210 000 001	4
강릉고	120 010 001	5

▲홈런=金柱一(9회·강릉고)

◆중등부준준결승(9일)

강남중	030 000 010	4
군산남	000 000 000	0
초량중	010 000 000	1
동대문중	000 200 00×	2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사람찾음

346 Weston Rd, 칸추리사이드 도나스숍을 맡아서 하시던 권경수(46세 가량)씨를 찾습니다.
권씨가 6월2일 이민국에 신청한 재반서류가 도착하였으니 빨리 연락 주십시요.　전화 : 665-0790

여권분실

여권분실 재공고
일터에서 여권을 잃어 버렸음. 전화 : 921-1644
여권번호 #R221791 -박우만-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속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구 혼

1957년생임. 신랑감을 구함(단 시민권자)
현재 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음.
전화 : 947-9383 (Mrs. 김, 오후6시이후)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실내설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 445-6440(B) 755-0308(R)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집, 음식점, 도넛숍, 사무실, 디자인등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한국일보 : 533-2361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드립니다.
(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1,000 Sq Ft. 가게와 방 세놓음.
다운타운 지역. (사무실에 적합).
전화 : 368-9018, 366-0960

아파트 세놓음.
1 베드룸과 2 베드룸. Eglinton & Weston지역.
전화 : 243-0233.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 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수 선

FRIENDLY SHOES REPAIR SHOP
구두수선, 친절봉사
2400 Bloor St. W.(Jane Subway 옆) 전화 : 763-6188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화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2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RES : 252-7491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8247 정 용 태

Auto Service(Tune-Up, Brake, Engine)
6 Moselle Dr. 전화 749-9749 Mr.박(출장수리)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깨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페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켄싱턴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전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안내판 9면에 계속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한식·중식 요리사 구함.(Cook Wanted)
Sura-Peking Garden
140-C Carton St. 전화 : 962-6694

웨이트레스 구함. 한국관
전화 : 536-0290.

학교 옆에 있는 적은 가게 운영하실분.
지하실 2 Bedrooms 입주가능.
전화 : 261-7980

서양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 있는
웨이트레스 급구함(근무시간 오전9시~오후5시)
전화 : 923-3060

도안사 구함.
전화 : 789-7351

경험있는 Cashier와 섬부마린하실 여자분 구함.
(High Park & Bloor 지역)
전화 : 762-6578

햄버거숍에서 근무하실 남자분 구함.
영어회화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921-9745(오후 8시-11시 사이)

여자 Cashier Store Helper 구함.
전화 : 465-4358

한국요리사와 부엌헬퍼 급구.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음식점 정원 전화 : 1-354-3800. Mr. 리.

재봉사 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개인 전문 교사로 영어, 수학 가르침.
(어린이, 어른) 싼 수업료.
전화 : 636-5202 Janyce

남·녀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일 지불함. 좋은 농장.
전화 : 461-799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천마리당 20불)
지렁이 삽니다. (가져오시면 천마리당 22불 드립니다.)
전화 : 763-4057

출퇴근하시면서 아기 봐주실분 구함.
전화 : 537-5164.

경험 있는 캐쉬어 구함.
전화 : 690-5554 (맥스 밀크 Mr. 정)

지렁이 잡을 분 구합니다.
남·녀 불문.
전화 : 656-5232 매일 지불함.

북미 최초의 한국인 야마하 피아노
대리점으로 사업운영에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전화 : 881-8230. Mr. 윤

룸메이트 구함. 여자분 원함.
전화 : 621-4985. (민정엄마)
저녁 6시이후(월~목요일) 전화하세요.

매 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500. Asking $4만2천 + Stock. Rent $250
1541 O'Connor Dr. (직접 내방요)

헤어드레스 Shop 비지네스 팝니다.
Asking $12,000(장비포함 일체) 렌트 $380.
전화 : 921-5947. 5년 리스.

3년된 2층 벽돌집 팝니다.
(Dufferin & Steeles)
4 Bedroom, 2 Fire Place, 센트럴 에어콘디숀.
완전히 꾸며진 지하실, 그밖에 많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좋은 House.
전화 : 638-6181, 669-4912 Mrs. Lidia
NARDI REAL ESTATE.

몰안에 있는 Hot Dog Stand 팝니다.
좋은 장소.
전화 : 826-5942(오후2시~4시), 622-7763(오후5시이후)

체스트 윈드, 침대, 쇼파 세트, 높은 바 의자, Love Seat, 각종 매트레스, Sectionals Desk, Discontinued Styles 매트레스.
영업시간 : MON-FRI(AM9~PM5), SAT(AM8:30~PM2)
DIAMOND BROTHERS
106 Orfus Rd.(Dufferin & Lawrence)
전화 : 781-5563

Nature & Health Food Store 팝니다.
좋은 장비, 바쁜 스카보로 플라자내(가족사업). 좋은 리스.
전화 : 298-1118(4-6 PM) Mr. Gary.

하우스 팝니다. (미시사가, 다운타운까지 15분거리)
5 베드룸, 화장실 3, 큰 Lots(70 × 200), 따로 부엌시설이 된 넓은 레크레이숀 룸, Work Shop, Double Garage with in office & extra parking.
Easy Financing, Asking $139,000
전화 : 279-9739, 698-6219

현재 성업중인 스토아및 건물 팝니다.
전화 : 532-8260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형편상 급매.
권리금, 스탁 합쳐 5만불 정도. 경험자로 스탁 늘려 키울수 있는 분에게 양도코자 함. 62 Main St. North Markham(HWY 7, HWY 48 북쪽 프라자)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좋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416)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성업중인 Gift Store 급매.
큰 Mall안에 있음. 여자 혼자서 운영 가능함.
리스 1992년까지. 전화 : 633-7479

---

2 Convenient Stores for Sale.
Downtown - 1, Whitby - 1
전화 : 282-5498

스토어와 하우스-코너 버라이어티. 스토어 벽돌 디태취.
아파트 입구별도. 아스킹 : $124,000.
전화 : 596-8170. Mr. Edmund Tong Trustwell Realty Inc.

---

(1) 커피숍 주5일영업. 주매상 $4,000.
(2) 버거데리 Fast Food. 주6일. 주매상 $4,200.
전화 : 977-0578. K. SEE. Realty Inc. William Ng

도넛숍 팝니다. Bowmanville
총매상 : $18만~20만/year. 최상의 장소.
좋은 이익. 전화 : 416-433-1451. Mr. Cardenas

가게 팝니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 832-1573

코인 런드리 팝니다.
1357 Danforth Rd.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500. 렌트 $500. 리스 5년+5년옵숀
주소 : 357 Coxwell Ave.

버라이어티 스토어 팝니다 (건물포함)
주매상 : $5천 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 3 베드룸. 전화 : 781-7080.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Mall 안에 있는 과일가게 팝니다.
연매상 35만불. 문의전화는 284-3031.
(토요일 오후6시 이후. 또는 일요일 전화요망)

아주 싸게 내놓은 2층 4베드룸 큰 주택.
걸어서 한국교회에 갈 수 있음.
전화 : 787-3702(Bathurst & Wilson)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Bloor St.W. & E. of Christie St.)
주매상 : $7,500. 장소좋은 한인지역.
전화 : 977-0578(Mr. Fred or Jean) K.SEE REAL ESTATE INC.

턱숍 매매. Courtesy Tobacco & Gift. 아스킹 : $3만(Off 가능).
콘도미니움빌딩 지하에 있으며 콘비니언스 스토어로 바꿀 수 있음. 주소 : 110 Bloor St. W.(Low Concose). 전화 : 362-0861.

One Way 칼가리 비행기표 팝니다.
전화 : 598-2436

드라이클리닝 플랜트 팝니다(다운타운 플라자내)
$1,500 wk/gross. Lease to 1996.
전화 : 752-7575 Mr. Sotos(Rainbow 부동산)

전망좋은 사진가게 판매
증명사진, 액자, 인화, 현상, 여권사진
전화 : 335-6601(버링톤)

---

(1)토론토에서 30마일 떨어진 상업용건물(건물 Built 1978) 급매.
2개상점. 2 Apt 월 렌트수입 $750. 버라이어티스토어. 1 Apt. 구두수선가게+기계(건물주인). Asking $175,000
(2)구두수선가게(Missi On Mall). Asking $90,000.
전화 : 826-4355

비즈네스 전망 좋음!
2 에이커의 땅이 있는 살림할 수 있는 가족 비즈네스로 적당.
개스 펌프및 세탁기 있음. 일년내내 운영함.
쿠치칭 호수 근방. 주인이 재정운영 관계를 도울것임.
오퍼 접수중. Moore & Lougheed Ltd. (오릴리아 지역)
전화 : 1-(705)325-4448

토론토에서 한시간~한시간 반 거리.
(1) 버라이어티 가게(살림방 포함)
(2) 작은 여름관광 캠프(2 베드룸 살림집 포함)
(3) 가족 계절적 관광사업(3 베드룸 살림집 포함)으로 10개의 Cottage, 모터보트, 가게, 캠프장 포함.
전화 : 416-797-2256(Call Roz McCullough)

몬트리얼지역 그로서리 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Lotto. 주매상 1만1천+1,300(Lotto)
Asking $9만+스탁(현찰 8만불).
NO MWAT NO DELIVERY
전화 : 1-514-364-4627 MR. 송

Store 팝니다.
주매상 $5,000내외 + Lottario
리스 3년반, 옵션 5년
살림집까지 합쳐서 렌트 $1,100
1093 Woodbine Ave. (직접 내방요망)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팝니다. 전화 : 222-1770
주매상 $7,500-$8,000. 리스 1990년+옵션.
렌트 $832(Monthly). 800세대가 사는 턱숍.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페인트(파라, 벤자민무어등)와 벽지취급. 페인트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 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24-1967.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교민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봉사가격

SUPER SPECIAL SALE

TELEFUNKEN

Studio 1M Hi Fi

The ultimate in portable stereo sound 2 x 60 watts music power. 4-band tun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detachable 3-way speakers. Operates on AC, 12 volt car/marine battery, regular and rechargeable batteries

$699.00 REG. 1295.00

CC-9000

Newest in the Telefunken family ... full stereo, 2-band tuner, 2 x 30 watts music pow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2-way detachable speakers. Operates on AC or 12 volt DC external power supply

$399.00 REG. 799.00

CF-100

Portable stereo cassette player and FM radio in one compact unit! Pre-select any three FM stations and choose by pushbutton. Plays all tapes including metal. Supplied with carrying case, headphones, demo cassette and batteries.

$99.95
REG. 23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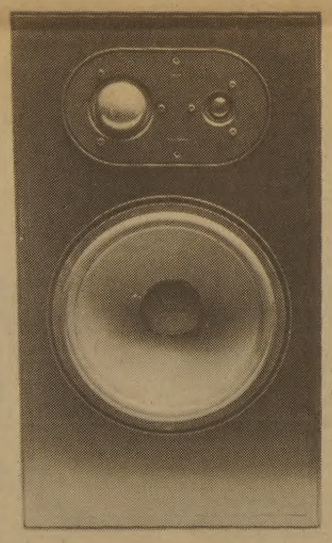
STEREO KING

Audio—Video—Sales & Service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 (416)766—4770
김봉훈

AKG
AIWA
SANSUI
SHERWOOD
S.A.E.
SHARP
TELEFUNKEN
GRUNDIG
NORDMENDE
INFINITY
JENSEN

BRAUN



파격적인 봉사가격

$1499

(EXTRA STAND & SPEAKER)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N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MOSFET FRONT END, AM—FM L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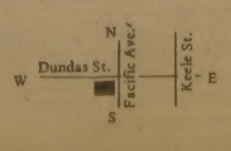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0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D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6070 HE SPEAKERS : 3 WAY SPEAKERS WITH 70 WATTS HANDLING CAPACITY.

STEREO KING

Audio—Video—Sales & Service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 (416)766—4770
김봉훈

AKG
AIWA
SANSUI
SHERWOOD
S.A.E.
SHARP
TELEFUNKEN
GRUNDIG
NORDMENDE
INFINITY
JENSEN